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있다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학 생 생 활 인 권 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모두의 행복이 보장된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안 공동체의 평화가 무너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며 불신과 반목이 자리 잡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입니다.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과 갈등이 학부모들의 감정싸움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학생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는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해결은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안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되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안처리가 진행되었으나 그 과정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학생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3월부터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상향 이관되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관계회복과 갈등조정을 통한 교육적 해결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관계회복과 갈등조정은 외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 구성원 중심의 갈등조정을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거나, 학부모 민원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형관계회복프로그램 워크북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있다'](#)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형관계회복프로그램 워크북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있다’는 관계회복과 갈등조정을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도 쉽게 이해하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현장 교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관계회복과 갈등조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 모델들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자료로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계회복을 연결하는 첫 시도입니다. 첫걸음의 미흡함과 지면의 한계로 더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 자료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힘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선생님들의 값진 노력으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학교 구석구석 어딘가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응원하며,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I. 평화의 터 다지기

1. 서클 활동하기	3
2. 존중의 문화 만들기	16
3. 공동체놀이	26

II. 일상적 갈등 만나기

1. 공동체를 연결하는 대화 기술	39
2. 즉시 조정하기	45
3.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 I	52
4.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 II	59
5. 또래 조정 알아보기	66

III.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1.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이란?	81
2. 초기 대응	83
3. 사안조사	84
4. 갈등조정 대화모임	96
5. 학교장 자체해결	108
6. 조치 이행	109
7. 사안 갈무리	110

[부록] 갈등조정 대화모임 사례	114
-------------------------	-----

[참고 문헌]	128
---------------	-----

제1부

평화의 터 다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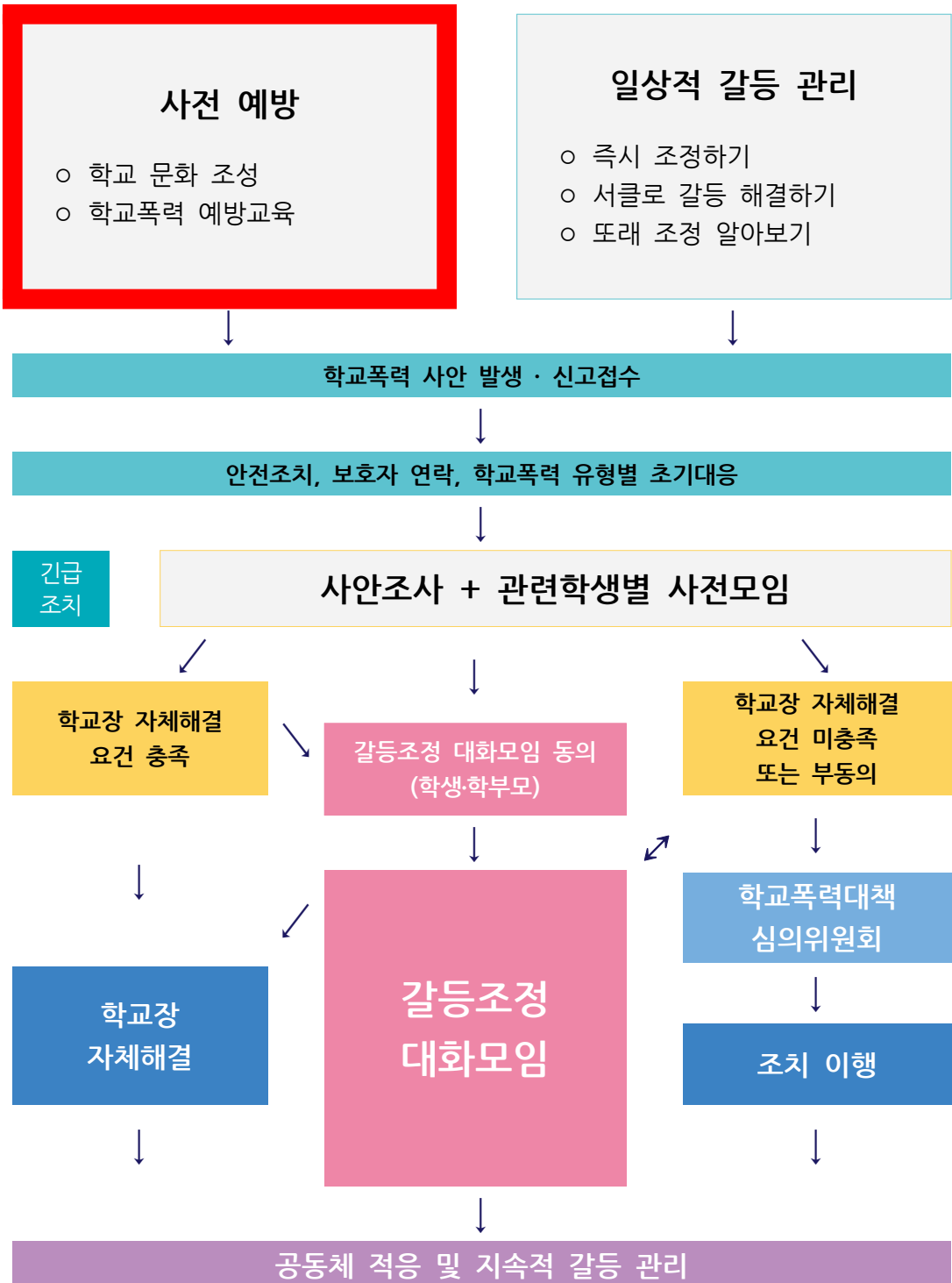
1. 서클 활동하기
2. 존중의 문화 만들기
3. 공동체놀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학교가 평화의 터가 되기 위해 유용한 교육 활동을 소개합니다.

- 상호 이해와 공감을 돕는 활동의 기본이 되는 서클 운영 방법과 이를 활용한 첫 만남 서클 진행 과정을 소개합니다.
- 학년(학기)초 학급의 비전을 세우고, 1년 동안 함께 실천할 존중의 약속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 감정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놀이를 소개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갈등 관리 체계



1

서클 활동하기



서클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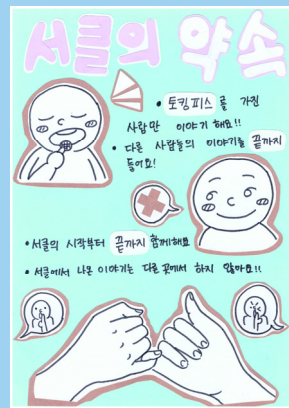
서클이란 원 모양의 형태로 모두가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평등하게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말합니다. 참여자 모두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어느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에서 관계를 맺기 위한 대화모임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서클은 첫 만남을 위한 서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클 등 운영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클의 약속

서클의 약속은 참가자들이 서클의 과정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고 수평적인 리더십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서클의 기본 약속입니다.

- 토크피스¹⁾를 가진 사람만 이야기해요.
-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요.
- 서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요.
- 서클에서 나온 이야기는 비밀을 유지해요.



4가지 기본 약속에 대해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고 서클을 시작합니다. 서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규칙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토크스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하 토크피스)



토키퍼스와 센터피스

토키퍼스



서클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도구로 토키퍼스를 가진 사람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다음 사람에게 토키퍼스를 건네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센터피스



둘러앉은 원의 가운데에 두는 물건으로 서클의 의미나 목적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편안하게 원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토키퍼스와 센터피스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의미를 지닌 물건이나 서클의 형태에 따라 어울리는 상징적인 것으로 하면 좋겠지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손에 질 수 있는 형태의 물건이면 됩니다.

운영 TIP

- 토키퍼스는 저학년의 경우 긴장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크고 부드러운 소재로 된 인형이 좋습니다.
- 토키퍼스는 함부로 던지거나 장난치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도록 약속하고 진행합니다.



공감서클 기본단계

- 공감서클의 기본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영 인사

- 서클을 여는 환영 인사하기

2

서클 열기

- 공감서클의 취지 안내하기
- 토크피스와 센터피스 소개하기
- 서클의 의미와 약속 안내하기

3

여는 질문

-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질문하고 답하기
- 교사의 시범 보이기

4

주제 질문

- 주제와 관련된 질문하기
- 돌아가며 이야기 나누기

5

소감 나누기

- 소감을 나누면서 서클 마무리하기

운영 TIP

- 서클 진행 전 간단한 공동체놀이를 하면 긴장감을 완화 시키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여는 질문 단계에서 감정카드, 이미지 카드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면 깊이 있는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서클을 진행할 때는 ‘서클의 의미’에 대한 안내가 꼭 필요하지만 익숙해지면 매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서클의 약속’은 서클 시작 전에 항상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만남 공감서클

사전준비

- 토크피스, 센터피스, 서클의 약속(게시), 밝고 따뜻한 음악, 그림(이미지) 카드, 시를 적은 종이 등
- 개학(입학)식 당일 2~3교시 운영(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미리 반영)

1 환영 인사

교 사 : (미리 틀어놓은 음악을 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첫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학생들 : 네, 반갑습니다.

2 서클 열기

교 사 :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간단한 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놀이²⁾ 중 하나의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하였는지 확인 후 놀이하기)

교 사 : 여러분, 긴장이 좀 풀렸나요?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선생님이 선물로 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태주의 '꽃꽃' 등 어울릴만한 시를 들려주거나 함께 돌아가면서 한 행씩 읽는다.)

각자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을 말하거나 소감을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들 : (돌아가며 자연스럽게 시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한다.)

교 사 :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보니……(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 시를 읽는 활동 외에 서클의 목적과 참여자의 성향에 맞는 활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서클의 의미 설명하기

교 사 :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소통하는 모임을 '서클'이라고 해요. 우리가 동그랗게 앉은 이유는 서로 평등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발언 기회를 갖습니다.

2) p.26~34 I-3 공동체놀이

■ 토크피스의 사용 방법 안내하기

교 사 : 이야기를 나눌 때 토크피스라는 물건을 이용해요. 토크피스를 들고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경청합니다. 토크피스를 건네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신의 차례에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패스’라고 말한 뒤 다음 사람에게 토크피스를 넘기고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를 다 한 후 마지막에 할 수도 있습니다.

■ 서클의 약속 상기하기

교 사 : 여러분이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서클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도 지킬 수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칠판에 게시된 서클의 약속 4가지를 함께 읽어본다.)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규칙이 있나요?

학생들 : 네. (학급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약속을 추가할 수 있다.)

운영 TIP

- 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 ‘침묵’을 의사 표현의 형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패스’를 장난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고, 대화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스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여는 질문

교 사 : 먼저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그 이유를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해 볼까요?**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달달한 사과를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학생들 : (교사 시범 후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한다. 토크피스를 자신의 오른쪽으로 건네며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눈다.)

■ 내가 고른 나의 여는 질문

※ ‘여는 질문목록(p.11)’에서 상황에 맞는 질문을 선택하세요.



4

주제 질문

교 사 : 이번 질문은 ‘우리 반은 어떤 반이 되면 좋을까요?’입니다. 그림을 보고 내가 바라는 우리 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카드를 한 장 골라주세요.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클 참여자들이 모두 고를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

교 사 : 혹시 말할 준비가 된 사람이 있나요? 그럼 ○○친구부터 이야기하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학생들 : (돌아가며 이야기 나누기)

■ 내가 고른 나의 주제 질문

※ ‘주제 질문 목록(p.12)’에서 상황에 맞는 질문을 선택하세요.

5

소감 나누기

교 사 : 마지막으로 오늘 서클로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을 한 문장으로(또는 5글자로) 말해 볼까요?

학생들 : (토크피스를 돌리면서 소감을 나눈다.)

교 사 :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 참 좋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며 끝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줄까요?

운영 TIP

- 저학년의 경우 여는 질문이나 주제 질문의 답변을 교사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주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서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할 때 답변의 이유도 함께 물어보면 발언하는 사람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다모임 공감서클

사전준비

- 토크피스, 센터피스, 서클의 약속(게시), 시를 적은 종이, 그림(이미지)카드, 밝고 따뜻한 음악(여유가 있다면 준비), 이름표 라벨지(매직으로 각자 간단히 쓸 수 있도록 준비) 등

1 환영 인사

교 사 : (미리 틀어놓은 음악을 끈다.) ○학년 ○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담임을 맡은 교사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교사의 학급 운영 철학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좋다.)

학부모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여는 의식

교 사 : 첫 만남이라 혹시 긴장하시거나 낯설게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의 만남을 축하하며 제가 학부모님들께 작은 선물로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교사가 낭독할 수도 있다)

학부모 : (함께 돌아가며 시 읽기)

교 사 : (서클의 목적을 소개하기)이 자리를 통해 아이들 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서클의 약속을 소개하겠습니다. (칠판에 게시된 약속을 함께 읽어도 좋으며, 센터피스와 토크피스도 이어 소개한다.)

3 여는 질문

교 사 : 이름표 라벨지에 각자의 이름을 써서 서로 볼 수 있도록 가슴에 붙여주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오늘 학교에 오실 때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학부모 : (돌아가며 이야기 나누기)

교 사 : 학부모님의 소개와 간단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놓인 다양한 이미지 카드 중에서 지금 내 마음과 닮아 있는**



카드를 한 장만 골라보세요.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고르신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선택한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 (선택한 카드와 그 이유를 돌아가며 이야기 나누기)

■ 내가 고른 나의 여는 질문

※ '여는 질문 목록(p.11)'에서 상황에 맞는 질문을 선택하세요.

4 주제 질문

교 사 : 지금까지 학부모님들과 가볍게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본 서클에서 나누고 싶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했으면 하는지요?
(서클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주제 질문을 통해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 내가 고른 나의 주제 질문

※ '주제 질문목록(p.12)'에서 상황에 맞는 질문을 선택하세요.

5 소감 나누기

교 사 : 처음에는 당황하고 어색하셨을 텐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서클에 참여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학부모 : (돌아가며 이야기 나누기)

교 사 :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운영 TIP

- 학부모의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게 시간제한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담임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질문보다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지 카드나 그림 카드는 여는 질문이나 주제 질문 단계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는 질문

학생용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특별한 날(생일 등) 친구들과 함께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 오늘 급식에 나왔으면 하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 내 마음을 1~10단계로 표현한다면?
- 지금 내 느낌을 날씨로 표현한다면?
- 내가 기르고 싶은(있는) 애완동물은?
-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운동선수)은 누구인가요?
- 지금 나의 기분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 선물 받고 싶은 장난감은?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나요? (외동은 외동이라고 소개한다.)
-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초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나요?

학부모/교사용

- 뜻밖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나 연예인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유년 시절의 행복했던 기억은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계절)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가 기자라면 어떤 기사를 쓰고 싶나요?
-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 내 이름에 대한 의미나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 지난주 나에게 일어난 가장 힘들고 도전이 되었던 과제는 무엇인가요?
- 요즘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인가요? 그 이유는?



■ 주제 질문

학생용

-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 내가 우리 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행복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올해 우리 반 친구들과 꼭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초등학생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 졸업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학부모용

- 우리 아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부모로서 가장 기쁘거나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 올해 아이의 성장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아이의 존재 자체가 고맙고 감사했던 기억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사용

- 교사로서의 업무 이외에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교사로서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된 기억이나 나를 성장시킨 기억은 무엇인가요?
- 교사가 되기로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나 사건은?
- 첫 발령지로의 첫 출근에 대한 기억은? (내 모습이나 기억나는 사람이나 사건은?)
- 언젠가 교직을 떠나게 될 때 동료 교사와 제자들에게 어떤 선생님이로 기억되고 싶나요?
- 교직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돌꽃 · 2

나태주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딸에게

김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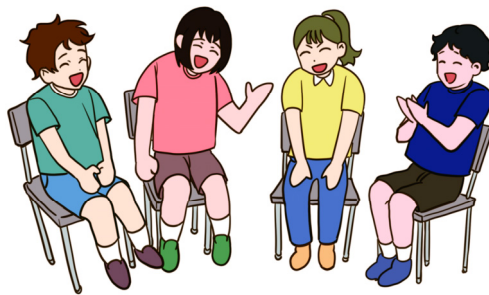
너는
지상에서 가장 쓸쓸한 사내에게 날아온 천상의
선녀가
하룻밤 잠자리에 떨어뜨리고 간 한 떨기의 꽃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

양성우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모든 들꽃과 꽃잎들과 진흙 속에 숨어사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살아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신비하다
바람도 없는 어느 한 여름날,
하늘을 가리우는 숲 그늘에 앉아보라
누구든지 나무들의 깊은 숨소리와 함께
무수한 초록잎들이 쉬지 않고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이 순간에,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상관없이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
오직 하나,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은 무엇이나 눈물겹게 아름답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다이애나 루먼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먼저 아이와 함께 손가락으로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2

존중의 문화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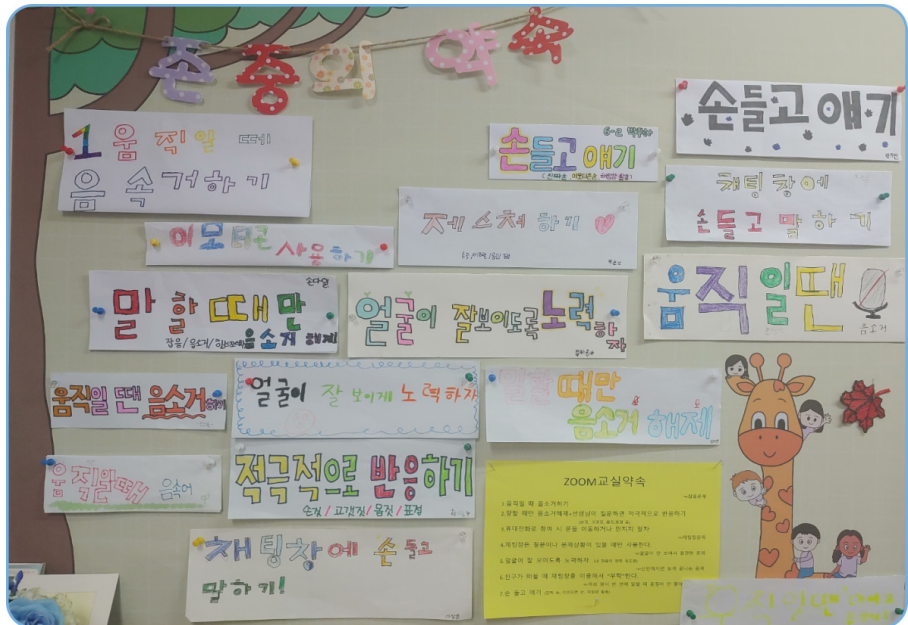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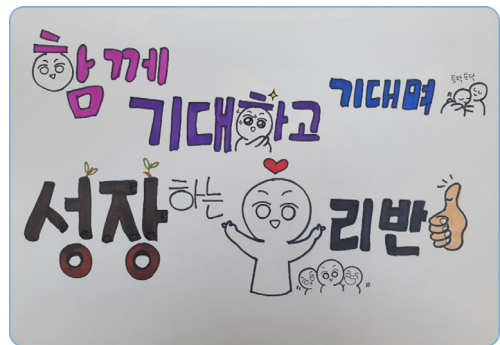


존중의 문화 만들기

학급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욕구를 인정받으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학기 초에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급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급 비전을 세운 이후에는 공동체 안에서 한 달간 함께 생활하며 느꼈던 불편함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합의하여 존중의 약속을 만듭니다.

존중의 약속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를 계속 보완하고 실천하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 존중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학급 비전 세우기

학기 초 1년 동안 함께 살아갈 학급 공동체의 비전을 세웁니다. 학급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2차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블록타임을 통해 활동이 연결되도록 구성하고, 블록타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1차시 활동과 2차시 활동 간 시간 간격이 크지 않도록 구성하면 좋습니다.

사전준비

- 토크피스, 센터피스, 서클의 약속(게시), 전지, 스티커, 매직, 포스트잇, 색종이 혹은 느낌카드, 욕구(필요) 카드³⁾ 등

■ 서클참여에 대한 환영과 서클의 약속 확인하기

- 가치 확인 서클에 대한 소개와 환영 인사하기
- 서클의 목적 안내하기

올 한 해 우리 반이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일 년 동안 학급 안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서클

- 서클의 약속을 상기시킨 후 진행하기

■ 공동체놀이하기

- 아이스 브레이킹 겸 자리 재배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놀이하기
- ※ 예시 :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찰칵찰칵 반가워 등⁴⁾

■ 여는 질문 _ 색종이 또는 느낌카드(목록) 활용

- 가볍게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나눌 수 있는 질문하기

- 새 학기를 맞은 현재 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 새 학기를 맞은 현재의 마음 상태를 맛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맛인가요?

※ '여는 질문 목록(p.11)'에서 상황에 맞는 질문을 선택하세요.

■ 주제 질문 _ 이미지 카드 활용

- 주제 질문을 통해 학급 구성원의 욕구 파악하기

- 행복한 학급은 어떤 학급인가요?
- 학급 안에서 일 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3) p.24 느낌카드 목록, 욕구카드 목록 활용

4) p.26~34 I-3 공동체놀이



■ 가치 공유하기(모둠 활동)

- 학생들은 욕구(필요)카드에서 가치 단어⁵⁾를 3개씩 고르고, 포스트잇에 쓰기
- 욕구(필요)카드에 없는 단어라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면 쓰기
- 포스트잇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그 단어를 선택한 이유 말하기
- 자신들이 작성한 포스트잇을 모두 칠판에 붙이기

■ 가치 유목화하기(전체 활동)

- 교사가 학생들과 소통하며 포스트잇을 유목화하기
- 유목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라도 배제되지 않도록 소수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의견 말할 기회 제공하기
- 유목화를 통해 도출된 가치 정리하기

■ 비전 문장 만들기(모둠 활동)

- 교사가 유목화를 통해 정리된 가치로 비전 문장을 만드는 시범보이기
- 학생들은 모둠별로 정리된 가치를 활용하여 비전 문장 만들기

■ 학급 비전 문장 완성하기(전체 활동)

- 각 모둠에서 제출한 문장을 칠판에 게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학급 비전 문장 완성하기
 - ※ 가급적 교사와 학생들이 소통을 통해 문장을 완성하되, 모둠이 많거나 학생들이 제출한 문장이 많을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소감 나누기

- 함께 학급 비전을 정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나누기
- 만들어진 학급 비전은 교실에 게시하여 일 년간 함께 보기

운영 TIP

- 학급 비전을 만들 때 소수의 의견에 대한 수용, 반영을 위해 '모두 동의제'⁶⁾와 'N-2원칙'⁷⁾에 근거하여 비전을 정합니다.
- 학급 인원이 많을 경우 학급비전 세우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 전지 대신 다양한 앱이나 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5) p.24 느낌카드 목록, 욕구카드 목록 활용

6)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마음의 일치를 위해 다른 목소리에 대한 '귀 기울임의 정신'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의견을 낼 수 있으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가진 반대의견을 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전체 동의로 간주 가능한 인원수(20명 이상인 경우 전체 인원수-2)를 정하여 합의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인원수에 따라 N-1, N-3 등으로 적용합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어야 하며 소수가 의견을 들을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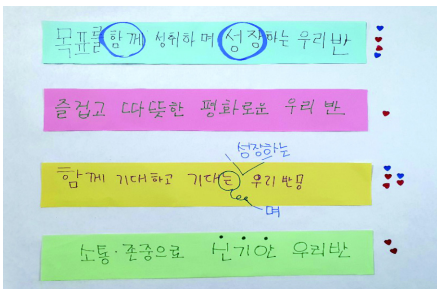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2018),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 ver2.0(초등), p.113



여는 질문 (지금 나의 마음은?)-느낌카드 활용

1	선택	26	정직
2	스스로	27	즐거움
3	휴식	28	재미
4	안전	29	유머
5	편안함	30	도전
6	보호	31	회복
7	...	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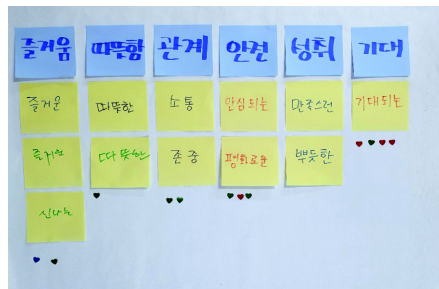
가치 공유하기-필요목록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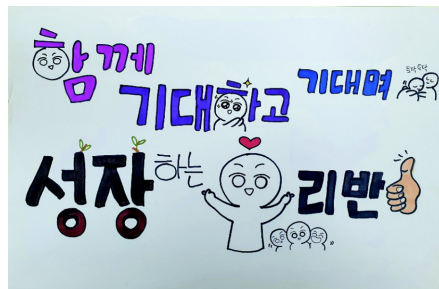
비전 문장 만들기



주제질문(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이미지 카드 활용



가치 유목화하기



학급 비전 문장 완성하기-N-2원칙 근거



존중의 약속 만들기

존중의 약속은 학교와 교실을 존중이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약속을 말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학생이 학생 서로에게, 구체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모두 포함합니다.

존중의 약속을 만드는 시기는 학기 초 학급 비전을 세우고 난 뒤 3월 말~4월 초 쯤이 적당합니다. 학급에서 한 달 간 생활해 본 후 그 동안 겪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존중의 약속(가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시행해 본 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합의하여 존중의 약속을 보완하고 확정합니다.

존중의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2차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블록타임을 통해 활동이 연결되도록 구성하고, 블록타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1차시 활동과 2차시 활동 간 시간 간격이 크지 않도록 구성하면 좋습니다.

사전준비

- 토크피스, 센터피스, 서클의 약속(게시), 전지, 매직, 스티커, 포스트잇, 욕구(필요) 카드

■ 존중의 의미와 필요성 공감하기

- 시를 함께 읽거나, 사진이나 그림 등을 함께 보면서 느낀 점이나 감정 나누기

※ 활용 자료: 시 '그날' / 베아트리스 부티농 '우리 모두 조금씩 달라' 동화책 표지 등

■ 여는 질문

- 새 학년이 되고 한 달간 지낸 나의 소감은?
- 현재 나의 기분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 현재 나의 마음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 주제 질문

-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내가 존중받지 못했을 때(불편했을 때)의 감정은 어땠나요?
- 내가 존중받았을 때는 언제이고 그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 우리 반에서 존중이 필요한 부분(사람, 장소, 시간, 행동 등)은 무엇인가요?
- 우리 반에서 다른 친구를 존중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 경험 나누기(모둠 활동)

- 학생들은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좋았던 경험과 싫었던 경험을 생각하기
- 포스트잇에 좋았던 경험과 싫었던 경험을 한 가지씩 쓰기(복수 작성 가능)

■ 경험 나누기(전체 활동)

- 칠판에 좋았던 경험과 싫었던 경험을 나누어 칸을 분리한 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포스트잇을 경험별로 분리하여 게시하도록 안내하기
- 학생들이 게시한 포스트잇을 비슷한 것끼리 정리하여 읽어주기
- 정리된 경험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학생이 있을 경우 발표할 기회 주기
- 자신의 경험과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속을 각자 3개씩 만들도록 안내하기(시범 보이기)

■ 존중의 약속 작성하기(모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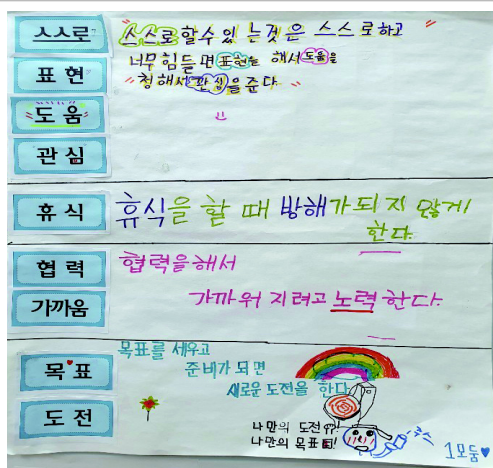
-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3개의 약속을 포스트잇에 작성하고 모둠원끼리 공유하기
- 공유한 약속을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고 약속 문장 리스트를 작성하기

■ 존중의 약속(가안) 만들기(전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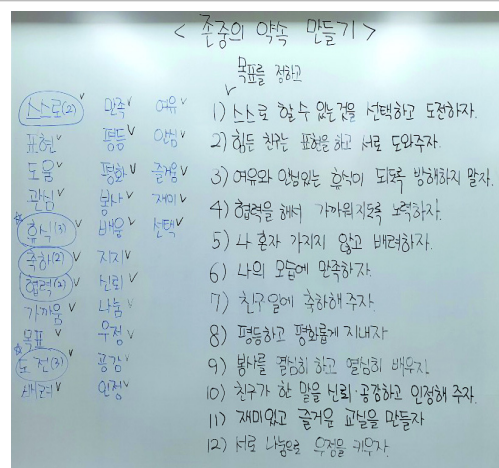
- 모둠별로 작성한 문장을 칠판에 게시하고, 발표하기
-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문장은 통합하고, 정리하여 존중의 약속(가안) 만들기

■ 존중의 약속(가안) 게시하고 실천하기

- 만들어진 약속(가안)을 정리하여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기
- 1~2주간(또는 3~4주간) 시행하며 수정해야 할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



모둠별 약속 문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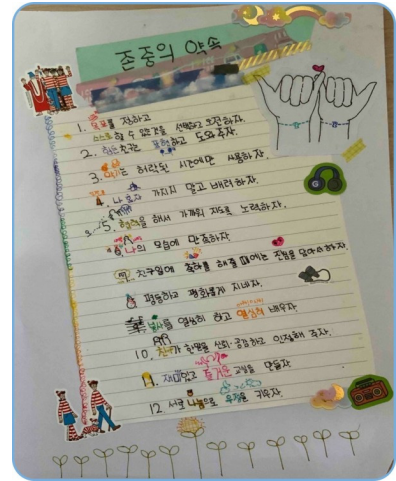


전체 약속 문장(가안) 만들기



■ 존중의 약속 확정하기 (1~2주 후)

- 모둠별 공감서클을 열어 존중의 약속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피드백하기
-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스티커 붙이기
- 스티커가 붙지 않은 항목은 존중의 약속으로 확정하고 스티커가 한 개라도 붙어 있으면 이야기 나누기
- 존중의 약속을 보완할 방안을 모둠별로 논의하고 의견 공유하기
- 스티커 붙인 친구들에게 불편함이 해소되었는지 묻기
- 존중의 약속을 확정하고 교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기



운영 TIP

- 존중의 약속을 제안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⁸⁾
 - 약속은 구체적으로 만들기
 -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 사용하기(욕하지 않기로 고운말 쓰기)
 - 약속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만드는 것임을 안내하기
- 학기 초 학급 비전 세우기 과정에서 공동의 필요가 정해진 경우 그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존중

- ① 존중의 약속을 확정된 후에도 종례 또는 자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존중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보완합니다.
- ②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학급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서클 활동⁹⁾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 ③ 1학기 초에 만든 존중의 약속은 방학을 거치고 2학기를 시작할 때 다시 확인하여 존중의 약속을 개정하거나 점검합니다. 이때, 새롭게 약속을 다시 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존중의 약속을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할수록 약속이 더 잘 지켜집니다.

8) 경기도교육청(2018),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 ver2.0(초등), p.39

9) p.52~57 II-3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



최후의 안전기지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 때문에 화를 내고, 일대일로 싸움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이를 ‘검투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싸움을 시작하면 학생들은 ‘구경꾼’이 됩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응원하는 것은 동료 학생입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며 학생을 다그치는 교사에게 공감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뭉칩니다. 교사가 얻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교실은 원형 경기장이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자이지 영웅적인 검투사가 아닙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검투사가 아니라 ‘최후의 안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훈계하고 있을 때,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 화부터 납니다.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소 가정과 학교에서 꾸중을 많이 들어 반항심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 꾸중을 들었을 때,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칭찬을 받기 위해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꾸중이 계속 반복되면 점차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중에는 그 감정이 분노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거칠고 예의 없게 반항하더라도 마음속 욕구는 여전히 사랑과 따뜻한 관심입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에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꾸중보다는 잘한 행동에 대해 칭찬했을 때 교육적 효과가 훨씬 큼니다.

“선생님은 왜 저만 미워하세요”라고 말하는 아이에게는 무엇보다 학급 규칙에 의거하여 학생의 잘못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규칙에 의해 훈계하는 것임을 학생이 이해하도록 설명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이해하고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승승장구 학급경영] 허승환, 나승빈 - 중에서 10)

10) 허승환, 나승빈(2018), 승승장구 학급경영, p.88~89



[숨은 느낌 찾기] 존중 대화_느낌카드 목록

고마운	뿌듯한	평화로운	놀란	섭섭한
기쁜	사랑하는	행복한	답답한	속상한
기특한	상쾌한	홀가분한	당황스런	슬픈
기대되는	신나는	후련한	떨리는	신경쓰이는
깨끗한	안심되는	감사한	막막한	약오르는
다정한	재미있는	걱정되는	무서운	억울한
든든한	정다운	기운나는	부끄러운	우울한
따뜻한	즐거운	괴로운	분한	열받는
만족스런	친근한	귀찮은	불안한	짜증나는
반가운	편안한	긴장되는	불편한	화나는



[숨은 욕구 찾기] 존중 대화_욕구카드 목록

선택	존중	나눔	회복	치유
스스로	공감	공동체	축하	목표
휴식	수용	안심	참여	숙달
안전	지지	위안	진실	표현
편안함	협력	신뢰	개성	홀가분함
보호	도움	정직	여유	조화
봉사	인정	즐거움	평화	평등
소통	관심	재미	질서	자아실현
연결	우정	유머	성취	기여
배려	가까움	도전	배움	만족

Q & A

Q1 고학년의 경우 교사가 아닌 학생이 서클 진행을 해도 될까요?

A1 학급 자치회나 모둠 세우기 등 의견을 모으는 기법의 하나로 돌아가며 발표하는 형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의 마음을 열고 공감과 경청을 바탕으로 하는 서클 의식을 학생이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교사의 주도하에 서클 코디네이터로 학생이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Q2 첫 만남인데 학부모 다모임 공감서클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A2 학부모가 총회나 학교 설명회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을 알고 싶고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클로 자리를 배치하고 간단한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폭이 커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교사를 신뢰하는 총회가 되기 때문에 일 년 동안 학급을 운영하는 데 큰 지지가 되어 줍니다.

Q3 ‘패스’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이들이 ‘패스’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서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A3 침묵도 하나의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기에 서클에서는 침묵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강요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이 선택하는 경험을 통해 존중받는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서클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연달아 패스를 하거나 장난으로 패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클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솔직하게 자신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의 참여 의지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클 참여자의 수나 구성원의 성숙도 혹은 패스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패스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스를 꼭 필요한 경우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패스’를 하더라도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말을 하고 난 뒤에 말을 하도록 약속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서클 활동에 익숙해지고 패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도록 지도하기를 권합니다.



3

공동체놀이

공동체놀이란 경쟁하지 않고 참여자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놀이 안에서 의사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놀이 후 소감을 나누며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놀이 중에 일어난 갈등을 풀거나 긍정적 관계 맺기에 도움이 됩니다.



놀이 약속 함께 만들기

학기 초에 아이들과 함께 놀이 약속을 정합니다. 이렇게 놀이 약속을 미리 정해놓으면, 놀이할 때마다 약속을 확인만 하면 되고 놀이가 끝난 후에는 약속을 잘 지켰는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 놀이 약속 만들기

❶ 친구들과 놀이 할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나요? 그때 친구들이 어떤 행동과 말을 했나요?

예) 제가 못해도 친구들이 괜찮다고 했어요.

❷ 어떤 행동과 말 때문에 즐겁지 않았나요?

예) 실수했을 때 친구들이 화를 냈어요.

❸ 즐겁게 놀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실수했을 때 “괜찮아”라고 말해줘요.

❹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세요.

예) 넘어진 친구가 있을 때 일으켜 세워줘요. 실수해도 화내지 않아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요.

-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지만 놀이에 지나친 해석이나 의미 부여는 하지 말아주세요.
- 놀이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놀이는 관계를 배우는 공간이므로 스스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세요.

-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운영 가이드북, 피스빌딩, 정진-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놀이 안내

- 준비물 : 의자
- 소요 시간 : 10~20분
- 놀이 준비: 참여 학생보다 1개 적은 수의 의자를 둥글게 놓기



놀이 방법

- ① 술래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둥글게 앉는다.



- ② 술래는 “나는 ○○이야. 만나서 반가워”라고 외치며 양 손을 흔든다.



- ③ 앉아있는 친구들은 “○○야 만나서 반가워.” 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며 인사한다.

- ④ 술래는 “응, 그래. 그런데 나는 ○○한 친구가 더 반가워”라고 외친다.



- ⑤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자리로 가서 앉는다.



- ⑥ 다른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된다.

놀이 TIP

- 첫 시작은 선생님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놀이 시작 전 미리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 처음에는 관찰로 시작해 경험이나 공감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김밥(모둠)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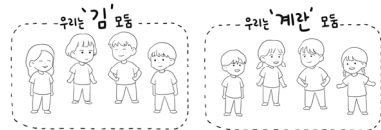
놀이 안내

- 준비물 : 없음
- 소요 시간 : 5분
- 놀이 준비: 서클로 앉거나 선다.



놀이 방법

- ① 선생님은 나눌 모듬의 개수를 생각한다.
- ② 아이들에게 김밥에 넣을 재료가 무엇인지 물어 본다. 이때 나누고 싶은 모듬의 개수만큼 재료를 선택한다.
- ③ 만약 5모듬으로 나누고 싶다면 5가지의 재료를 선택한다. (예: 김, 밥, 당근, 계란, 햄)
- ④ 한 명씩 차례로 '김, 밥, 당근, 계란, 햄, 김, 밥, 당근, 계란, 햄……'을 부여한다.
- ⑤ 다 부여했으면 같은 재료에 해당되는 아이들끼리 모이도록 한다.



놀이 TIP

- 김밥 재료 대신 숫자, 동물, 채소 등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모듬 구성 시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미리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 모듬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 놀이



놀이 안내

- 준비물 : 없음
- 소요 시간 : 10~20분
- 놀이 준비: 교실에 놀이 공간 확보하기



놀이 방법

- ① 학생들을 원으로 세우고 술래 한 명을 뽑는다.
참여 인원은 3의 배수+1일 때 가장 좋다.

- ② 3명씩 한 팀으로 정해준다.



- ③ 두 명이 손을 서로 맞잡고 서면 손을 잡은 사이에 남은 한 명이 들어가 가운데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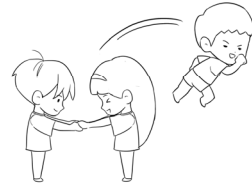
- ④ 손을 잡은 친구들은 '흰자', 가운데 친구는 '노른자'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노른자는 두 손을 반짝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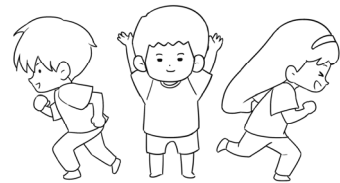
- ⑤ 모두 함께 “지글지글 보글보글 프라이팬 놀이”라고 외친다. 바로 이어서 술래가 ‘달걀 프라이’, ‘흰자’, ‘노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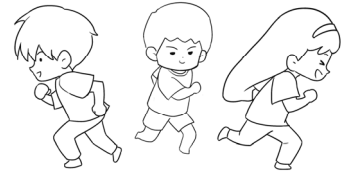
- ⑥ 술래가 “노른자!”를 외치면 노른자는 다른 흰자를 찾아 자리를 옮긴다.



- ⑦ 술래가 “흰자!”를 외치면 노른자는 그대로 있고 흰자들은 다른 노른자를 찾아 자리를 옮긴다.



- ⑧ 술래가 “달걀 프라이!”를 외치면 모두 흩어져 새로운 달걀 프라이를 만든다.



- ⑨ 짝을 짓지 못한 사람이 술래가 된다.

놀이 TIP

- 선생님이 함께 하면 더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 팀을 나눌 때 원으로 둘러선 후에 한사람이 한 글자씩 토, 마, 토를 돌아가며 부릅니다.
- 토마토 하나가 한 팀이 되게 구성해 쉽게 처음 팀을 만들도록 합니다.
- 아이들이 놀이에 익숙해질 때까지 교사가 달걀 프라이, 노른자, 흰자를 외치며 반복 연습을 시킵니다.



고양이와 쥐



놀이 안내

- 준비물 : 없음
- 소요 시간 : 20분
- 놀이 준비: 교실에 놀이 공간 확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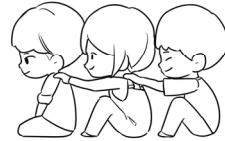


놀이 방법

- ① 두 명의 학생을 뽑는다. 한 명은 고양이와 되고 다른 한 명은 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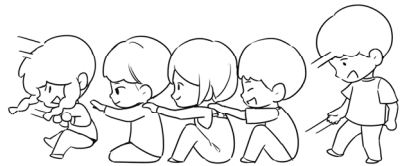


- ② 다른 학생들은 2~3명이 한 모듬이 되어 한 줄로 같은 방향을 보고 바닥에 앉는다.



- ③ 고양이는 큰소리로 “야옹”을 외치고 쥐를 잡으러 다닌다.

- ④ 쥐는 고양이에게 잡힐 것 같으면, 앉아있는 친구들의 맨 앞이나 맨 끝에 같은 방향을 보며 앉는다.



- ⑤ 쥐가 앞쪽에 앉으면 줄의 마지막 친구가 쥐가 되고, 맨 뒤에 앉으면 맨 앞 친구가 쥐가 되어 도망 가야 한다.

- ⑥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서로 역할을 바꿔 다시 놀이를 시작한다.



놀이 TIP

- 쥐는 1~2분 안에 바뀔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둡니다.
- 장소에 따라서 앉지 않고 손을 잡고 서서 할 수 있습니다.
- 쥐나 고양이는 앉아있는 친구들을 뛰어넘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 처음 시작할 때 고양이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2번 정도 말한 후 “야옹”을 외치도록 하면 쥐가 여유있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모서리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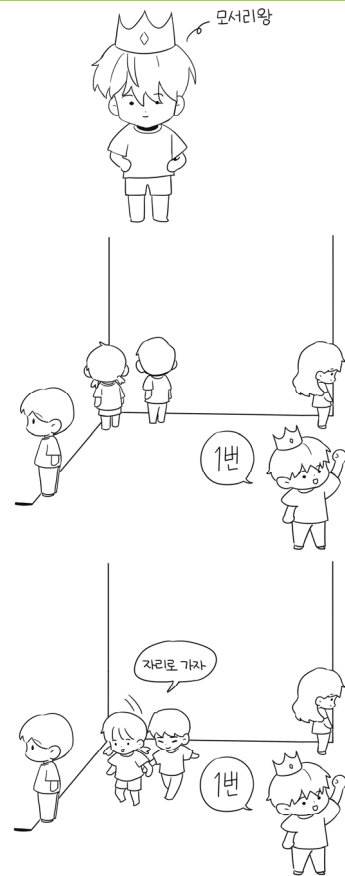
놀이 안내

- 준비물 : 없음
- 소요 시간 : 10분
- 놀이 준비: 교실에 놀이 공간 확보하기



놀이 방법

- ① 교실 네 귀퉁이를 1, 2, 3, 4로 정한다.
- ② 술래 한 명을 뽑아 '모서리 왕'으로 정한다.
- ③ '모서리 왕'은 친구들을 등지고 앉는다.
- ④ 모서리 왕이 10까지 셀 동안 아이들은 네 귀퉁이 중 한 곳으로 간다.
(숫자 세기가 끝나면 이동할 수 없다.)
- ⑤ 왕이 1~4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친다.
- ⑥ 왕이 외친 숫자에 해당되는 모서리에 있는 학생은 자기 자리에 들어가 앉는다. ④번부터 다시 반복한다.
- ⑦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으면 다음 '모서리 왕'이 되어 게임을 다시 시작한다.



놀이 TIP

- 안대가 있다면 모서리 왕에게 안대를 씌울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의 이동을 위해 모서리 왕에게 숫자를 천천히 세게 합니다.
- 응용 : 교실 네 귀퉁이를 숫자 대신 '음식', '여행지', '색깔' 이름 붙이고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니?" 등으로 질문을 바꾸어 놀이할 수 있습니다.



절친 찾기!



놀이 안내

- 준비물 : 없음
- 소요 시간 : 10분
- 놀이 준비: 교실에 놀이 공간 확보하기



놀이 방법

❶ 두 명이 짝이 되어 등을 맞대고 선다.

❷ 선생님의 “하나, 둘, 셋” 신호에 따라 각자 오른쪽 또는 왼쪽을 선택하여 바라본다.

하나! 둘! 셋!



❸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서로 두 손을 맞잡고 “사랑해! 친구야”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 “미안해! 친구야”를 말한다.



❹ 같은 사람과 3회(또는 5회) 반복한다.

❺ 새로운 짝을 바꾸며 계속한다.

놀이 TIP

- 다양한 친구끼리 짝을 지어 줍니다.
- 모두 “사랑해! 친구야!”라고 말했을 때 “만세”를 외치게 합니다.
- 끝난 후 활동 소감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찌릿찌릿 반가워



놀이 안내

- 준비물 : 종이, 연필
- 소요 시간 : 10분
- 놀이 준비: 종이 (온라인 수업 시 종이는 각자 준비)



놀이 방법

- ① 질문을 쓴 종이를 나누어 준다.
- ‘좋아하는 과일 5가지’, ‘좋아하는 음식 5가지’
- ② 나누어준 종이에 답을 완성한다.
- ③ 발표자 한 명을 뽑는다. “안녕! 난 ☆☆이야 만나서 반가워.” 나머지 아이들은 “안녕! ☆☆야 만나서 반가워.”라고 대답한다.
- ④ 발표자는 자신이 쓴 답의 하나를 선택해서 말한다. “나는 사과를 좋아해.”
- ⑤ 같은 대답이 있는 사람은 발표자를 향해 손짓하며 “찌릿찌릿! 반가워.”라고 외친다.
- ⑥ 돌아가며 계속 놀이한다.

좋아하는 과일 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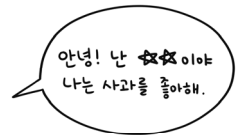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놀이 TIP

- “찌릿찌릿! 반가워.”를 외칠 때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 할 수 있으니 놀이 시작 전 몸짓만 먼저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우주 (Mikrokosmos)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하나

어두운 밤 외로워 마
별처럼 다 우린 빛나
사라지지 마 큰 존재니까
Let us shine

어쩔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꺾
I got you
칠흑 같던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에 하나의 역사
한 사람에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world

70억 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One

도시의 불 이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하늘을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in'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린 우리대로 빛나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리 그 자체로 빛나 Tonight

[소우주] 방탄소년단 노래 11)

11) Matty Thomson 외 11인(2019) 작곡, 출처 방탄소년단 MAP OF THE SOUL : PERSONA 앨범



제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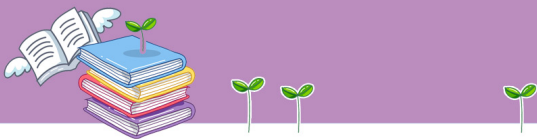
일상적 갈등 만나기

1. 공동체를 연결하는 대화 기술
2. 즉시 조정하기
3.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 I
4.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 II
5. 또래 조정 알아보기

평화의 터를 다진 학교(학급)에도 갈등은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수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 있다면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일상 속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질문과 대화를 소개합니다.

- 갈등조정 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며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 기술을 소개합니다.
- 학생 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의 장면에서 즉시 개입하여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화해의 과정을 진행하는 「즉시 조정」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 학급의 갈등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서클 활동 예시를 소개합니다.
-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을 또래집단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또래 조정 활동을 소개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갈등 관리 체계



1

공동체를 연결하는 대화 기술¹²⁾



대화 기술은 왜 필요할까?

공동체에서는 늘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을 이해하며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갈등을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유능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동체를 연결하는 대화 기술입니다.

교사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임의적인 해석을 말하지 않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대화 기술을 충분히 연습하여 적용하면 좀 더 평화롭게 갈등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연결하는 대화 기술

■ 공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갈등 당사자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함으로써 각자의 마음속 생각, 느낌과 욕구를 충분히 수용한 상태를 말합니다. 교사의 공감하는 태도는 갈등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공감은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대화 기술입니다.

민욱 : 돼지라고 놀려서 정말 짜증이 나요,

교사 : 놀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했어요?

민욱 : 네, 정말 속상했어요,

■ 합의

교사가 답을 제시하거나 타협을 강요하지 않고,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의 말을 충분히 들은 후 상대가 이해될 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찾게 돕는 대화 기술입니다.

■ 입장과 욕구의 구별

갈등 당사자들의 대립된 주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그 주장 뒤에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입장과 필요(욕구)를 파악한 뒤 문제 상황을 다시 보도록 안내하는 대화기술입니다.

12) 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함.
경기도교육청(2014),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 p.124~125



민서 : 하준이 때문에 짜증 나요, **전학을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입장)
 교사 :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민서 : 하준이가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잖아요,
 교사 : 하준이의 행동으로 **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건가요?** (입장)
 민서 : 네,
 교사 : 민서는 하준이와 **거리를 두며 생활하길 원하나요?** (입장)
 민서 : 네, 하준이와 마주치기 싫어요,
 교사 : 하준이와 **마주치지 않으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입장)
 민서 : 네,
 교사 : 민서는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군요.** (옥구)

■ 감정언어 진술

옳고 그른 논리적 사고보다 각자의 말 뒤에 흐르고 있는 감정의 에너지를 제대로 표현하고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듣게 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넘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바꿔 말해주기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친 말, 비난, 욕설, 강요와 짜증 등의 표현을 걸러내어 그 뒤에 숨어있는 사실, 의도, 가치 등 원래 전하고 싶은 속 뜻을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짚어내어 다시 전달해 주는 대화 기술입니다.

성진 : 저에 대해 뒷담화했다는 말을 듣고, **죽여 버리고 싶었어요.**
 교사 : 뒷담화했다는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많이 났어요?**
 성진 : 네,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 판단 내려놓기

교사는 갈등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평소의 모습으로 인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과정에서 불편한 말이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사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판단을 내려놓고, 갈등 당사자에게 집중하도록 돕는 대화 기술입니다.

민호 : 아! 짜증나! 재가 먼저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교사 : (민호의 말투가 예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봄)
민호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까 봐 걱정되고 화가 났나요?



공동체를 연결하는 대화 기술(예시)

학생의 표현	교사의 반응
• 개한테 따지고 싶어요.	→ • (상대학생에게) 설명을 하고/듣고 싶다는 것인가요? •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고 싶다는 뜻인가요?
• 개는 따끔하게 훈이 나야 해요.	→ • 개가 그만큼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 개가 잘못된 걸 알아달라는 뜻인가요?
• 개를 때려 주고 싶어요.	→ • 얼마나 힘들었는지/고통스러웠는지/아팠는지 알게 하고 싶다는 뜻인가요?
• 개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요. • 개는 쪽팔려 봐야 해요.	→ •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가 알고 위로해주길 바란다는 뜻인가요?
• 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 개하고는 조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 • (상대학생)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는 뜻인가요? • 괜찮아질 때까지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인가요?
• 전학 가고 싶어요.	→ • 전학을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건가요?
• 다 잊고 싶어요. / 없었던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해되는데 맞나요? •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다는 건가요?
• 저만 잘못된 거예요? • 재도 그랬어요. •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 •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만 잘못했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되나요? •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잘못만 볼거릴까 불안한가요?
• 억울해요.	→ •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사실이 있나요?
• 거짓말이에요.	→ •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이 있나요? • (상대학생)이 말한 것과 다른 사실이 있나요?



학생의 표현	교사의 반응
• 될 대로 되라 그래요.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의미인가요? ➔ •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되나요?
•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어요.	➔ •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요?
•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상대학생)도 알고 있나요?
• 제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 • 이 일과 관련해서 많이 속상한 것이 있나요?
•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 이번 일에 어머니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 • 어머니께서 알게 되시면 많이 속상해하실까요? • 어머니께 혼날까 봐 걱정되나요?
• 전 원래 그런 애 아니에요.	• 사람들이 너에 대해 오해한다고 생각하나요? ➔ • 비난받을까 걱정되나요? • 이런 경우 평소에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 개는 원래 나쁜(이상한) 애예요. • 이번 일은 개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 • 평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그 일이 이번 일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 이번에는 못 참겠어요.	➔ •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힘든가 보네요.
• 가만 안 둘 거예요.	➔ •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났군요. • 그만큼 힘들었다는 건가요?





공감을 방해하는 반응(예시)

학생의 말에 대한 반응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반응은 대화를 방해합니다. 학생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표현했을 때, 교사가 다음과 같이 반응하면 학생의 마음이 닫히고,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분류	공감을 방해하는 반응
① 충고/조언/교육하기	“그러면 잘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② 분석/진단/설명하기	“너 요새 공부가 어려워서 그렇게 느끼나 보네,” “그건 네 성격이 소심해서 그래,”
③ 바로잡기	“왜 없어~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④ 위로하기	“원래 다 그런 거야, 네 잘못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아유, 너무 힘들었겠다, 선생님도 이렇게 속상한데 넌 오죽하겠니,”
⑤ 맞장구치기/ 내 얘기 들려주기	“어머, 너도 그랬어?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어, 선생님 어릴 때랑 어쩔 이렇게 똑같은까,” “선생님이 더 힘들어,”
⑥ 감정의 흐름을 중지/전환시키기	“너 지금 너무 걱정이 많은 거 같아,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배부른 소리하네, 이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⑦ 동정/애처로워하기	“에구 큰일이네, 정말 안됐다,” “넌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마다 꼬일까, 진짜 안타깝다,”
⑧ 조사하기/심문하기	“너 왜 그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언제부터 그랬는데? 혹시 죽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지?”
⑨ 평가/빈정대기	“선생님이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했잖아,” “잘~ 한다~ 너 그렇게 약해 빠져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⑩ 한 방에 딱 자르기	“됐어,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네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긴장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네가 옳다’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나. 물론이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 종락 -

나는 그럴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맘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라고 묻는다.

사람은 괜히 집을 나가지 않으며 괜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물며 괜히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백 가지 이상은 찾아본 이후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 마음은 옳다고. 다른 말은 모두 그 말 이후에 해야 마땅하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다. 사람 마음을 대하는 예의이기도 하다.

‘네가 옳다’는 확인을 받으면 “집을 나가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따위의 말들은 이내 아침 이슬이 된다. ‘당신이 옳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먹살잡이하는 허무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당신이 옳다] 정혜신 - 중에서 13)

13) 정혜신(2019), 당신이 옳다, p.52~53

2

즉시 조정하기



갈등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 중, 방과 후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발생합니다.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을 발견한 교사는 어떤 대화 방법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즉시 조정하기는 교사가 학생들이 갈등을 직면하여 평화롭게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대화 방법입니다.



즉시 조정하기 5단계¹⁴⁾

1

대화 방법 안내

- 갈등 상황 발견 후, 즉시 개입
- 대화 동의
- 대화 방법 안내

2

서로 이해하기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 명씩 이야기하기
- 들은 대로 다시 말하기

3

어려움 살피기

- 자신, 상대방, 주변에 발생한 피해와 어려움 살피기

4

책임지기

-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지 이야기하기
- 해결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이야기하기
- 상대방 또는 주변이 함께 해주길 바라는 일 이야기하기

5

약속하기

- 해결을 위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일 약속하기
- 담임교사의 격려와 지지로 마무리하기

14) 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상함.

경기도교육청(2014),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 p.60~73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워크북 ver 2.0(초등), p.161~164

비폭력평화물결 '긴급갈등개입' 및 회복적정의평화배움연구소에듀피스 '회복적 질문을 활용한 회복적 대화'



즉시 조정하기 단계별 질문(예시)

1 대화 방법 안내

- 잠깐만! 멈춰 주세요?
-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해볼래요?
- 세 가지 부탁이 있는데, 먼저 차례대로 돌아가며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들은 말을 기억해서 다시 말해주세요.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해요.

2 서로 이해하기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말할(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 들은 대로 말해줄래요?
- 말한 것이 맞나요?
- 그때의 마음을 말해볼까요?

3 어려움 살피기

- 상대방의 태도에서 무엇이 가장 속상했는지 말해줄래요?
- 상대방은 나의 태도에서 무엇이 가장 속상했는지 말해줄래요?
-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해줄래요?

4 책임지기

- 앞으로 서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해줄래요?
- 상대방이 해주길 바라는 일이 있다면 말해줄래요?
-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해줄래요?

5 약속하기

- 각자 앞으로 실천할 약속을 말해볼까요?
-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지금부터 자신이 한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말하고, 선생님도 잘 지켜볼게요.



즉시 조정하기(예시)

문제 상황

교실에서 재석이가 “야, 뭐하는 거야? 내 스마트폰 내놔!”라고 소리 지르며 명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뺏어갔습니다. 명수는 “누가 안 준대? 왜 화를 내?” 하면서 같이 소리를 질렀고, 재석이는 “누가 네 맘대로 쓰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께서 재석이와 명수에게 급히 다가왔습니다.

재석의 상황	명수의 상황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명수가 허락 없이 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봤다. 지난달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어제 엄마께 혼났는데, 명수가 데이터를 사용할까 봐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명수 손에서 스마트폰을 가져왔다. 평소 명수는 친하다는 이유로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서 속상했는데, 오늘은 정말 참을 수 없었다.	5교시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엄마께 전화하려고 하는데, 오늘 깜빡하고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았다. 마침 재석이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있었고, 재석이는 친한 친구니까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 사용했다. 그런데 교실을 들어오던 재석이가 나를 보더니 화를 내면서 스마트폰을 뺏어갔다.

1

대화 방법 안내

교사 : 잠깐만! 멈춰 불래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어 왔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해볼래요?**

재석, 명수 : 네.

교사 : 선생님은 누구를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 세 가지 부탁이 있어요.

먼저, **차례대로 돌아가며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음으로, **들은 말을 기억해서 다시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해요.**

재석, 명수 : 네.





2

서로 이해하기

교사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말할(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재석 : 저요.

■ 재석이의 상황 이해하기

교사 : 그럼 재석이가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명수는 잘 들어주세요.

재석 :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명수가 허락 없이 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 봤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고 가져갔는데, 명수가 “누가 안 준대?”라고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교사 : 명수야, 들은 대로 말해줄래요?

명수 : 제가 재석이 허락 없이 스마트폰을 썼는데, 재석이가 가져가니까 제가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다고 했어요.

교사 : 재석아, 명수가 말한 것이 맞나요?

재석 : 네, 맞아요.

(재석이가 “아니요.”라고 하면 교사는 재석이에게 다시 말해주길 부탁하고, 명수에게는 경청하길 부탁드립니다.)

■ 명수의 상황 이해하기

교사 : 이제 명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재석이는 잘 들어주세요.

명수 : 준비물을 안 가져왔는데, 스마트폰도 안 가져와서 재석이 스마트폰을 잠깐 빌린 거예요. 재석이는 제 친한 친구니까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석이가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스마트폰을 뺏어갔어요.

교사 : 재석아, 들은 대로 말해줄래요?

재석 : 명수가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전화하려고 빌려 갔대요. 제가 친한 친구라서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뺏어갔대요.

교사 : 명수야, 재석이가 말한 것이 맞나요?

명수 : 네, 맞아요.

■ 재석이의 마음 이해하기

교사 : 이번에는 재석이가 그때의 마음을 말해볼까요?

재석 : 어제 스마트폰 요금 많이 나왔다고 엄마한테 혼났는데, 명수가 저 몰래 데이터 쓸까 봐 걱정됐어요. 평소에 제 물건을 말없이 쓰는 것도 싫었고요.

교사 : 명수야, 들은 대로 말해줄래요?

명수 : 재석이가 어제 스마트폰 요금 때문에 엄마한테 혼났대요. 제가 데이터 쓸까 봐 걱정됐대요. 평소에 제가 재석이 물건을 말없이 쓰는 것도 싫었대요.

교사 : 재석아, 명수가 말한 것이 맞나요?

재석 : 네, 맞아요.

■ 명수의 마음 이해하기

교사 : 그럼 명수가 **그때의 마음을 말해볼까요?**

명수 : 재석이는 친한 친구라서 제가 잠깐 스마트폰 빌려 쓰는 것은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를 내니까 저도 화가 났어요.

교사 : 재석아, **들은 대로 말해줄래요?**

재석 : 명수는 저랑 친해서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제가 갑자기 화를 내서 명수도 화가 났대요.

교사 : 재석아, 명수가 **말한 것이 맞나요?**

명수 : 네, 맞아요.

3 어려움 살피기

■ 자신의 어려움 살피기

교사 : 상대방의 태도에서 무엇이 가장 속상했는지 말해줄래요?

재석 : 저는 명수가 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게 싫어요.

명수 : 저는 재석이가 말로 해도 되는데 친구들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 게 싫어요.

■ 상대방의 어려움 살피기

교사 : 그럼 상대방은 나의 태도에서 무엇이 가장 속상했는지 말해줄래요?

재석 : 제가 친구들 앞에서 소리 지르니까 명수가 창피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명수 : 제가 말도 없이 휴대폰을 가져가니까 재석이가 속상했을 것 같아요.

■ 주변의 어려움 살피기

교사 : 그럼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재석 :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싸우니까 놀랐을 것 같아요.

명수 : 친구들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 어려움을 살핀 후, 느낀 점 나누기

교사 :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해줄래요?

재석 : 명수가 준비물을 안 가져온 줄 몰랐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서 미안해요.

명수 : 제가 재석이 물건을 말없이 쓰는 걸 재석이가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4

책임지기

■ 서로의 관계 설정하기

교사 : 앞으로 서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재석 : 명수랑 예전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명수 : 저도 재석이란 화해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 해결 방법 나누기

교사 : 해결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해줄래요?

재석 : 저는 명수에게 화가 나면 소리 지르지 않고 먼저 말로 할게요.

명수 : 저는 재석이란한테 빌리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물어볼게요.

교사 : 해결을 위해 상대방이 해주길 바라는 일이 있다면 말해줄래요?

재석 : 명수가 제 물건을 맘대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수 : 재석이가 소리 지르면서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사 : 해결을 위해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해줄래요?

재석 : 없어요.

명수 : 없어요.

5

약속하기

교사 : 앞에서 한 이야기를 생각하며 각자 앞으로 실천할 약속을 말해볼까요?

재석 : 저는 명수에게 소리 지르면서 화내지 않고 말로 할게요.

명수 : 저는 재석이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을게요.

교사 :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재석 : 없어요.

명수 : 없어요.

교사 : 지금부터 자신이 한 약속을 잘 지켜서 앞으로는 이런 다툼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말하고, 선생님도 잘 지켜볼게요.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눠주어 고마워요.

운영 TIP

- 서로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 책임지기 단계에서 “저를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등의 말을 하며 상대방과 거리를 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아직 그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런 마음을 인정해줍니다.
- 갈등 당사자 모두 아쉬움이 없이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약속하기 단계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면 좋습니다.



슬퍼하는 아이를 만났다면

슬퍼하는 아이를 만났다면
가만히 꼭 안아주고

자신감을 잃은 아이를 만났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해줘야 합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만났다면 길을 찾을 때까지
곁에 있어 주고

마음이 다친 아이를 만났다면
좋아하는 것을 주며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달래 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많은 슬픔과 힘든 일을 겪어나가겠지만
당신이 언제 어디서든 그 아이의 편이 되어 준다면
그 아이는 덜 상처받으며
덜 두려워하며
덜 걱정하며
더 많이 웃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아이는 서툴 수밖에 없는
조금씩 어른이 돼가고 있는 '나'입니다.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글배우 15중에서 15)

15) 글배우(2020),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p.86~87



3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 I 16)

학급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학급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적합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클의 진정한 목적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연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본 서클 활동은 반 전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 재구성을 통해 운영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진행해요

- 학급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생겼을 때
 - 비난하거나 거친 욕을 하는 분위기로 대다수가 힘들어할 때
-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 거울이 깨졌을 때, 학급에 도난 사건이 있을 때 등
- 학급 전체의 선택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운영 TIP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 각 문제 상황에 맞게 서클의 일부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 모둠끼리의 문제 발생 시 모둠원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자치회의에서 의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 경기도교육청(2018),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 ver2.0(중등) p.100~105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 I

1	서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클을 열게 된 사건의 개요와 이에 대한 교사의 우려를 ‘나 전달법’¹⁷⁾으로 전하기 - 서클의 약속과 방법 소개하기
2	마음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는 질문으로 마음을 열고 서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기
3	사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질문하기
4	영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하고 있는 사건으로 인해 공동체가 받는 영향과 피해, 어려움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질문하기
5	피해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부정적 영향을 회복할 수 있는 질문하기 -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묻기
6	약속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하기
7	느낌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 과정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하기 - 서클을 마무리하는 느낌 나누기

단계별 질문(예시)

마음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의 마음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내 컨디션을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인가요? 왜 그 점수를 주었나요?
사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이번 일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이 일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다른 갈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영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제로 인해 속상하고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우리 반 친구들이 겪은 피해와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피해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약속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일을 또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나는) 어떤 약속을 해야 할까요?
느낌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 대화(서클에 참여)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17) 나 전달법(I-message) 또는 나 진술(I statement)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 신념, 가치 등에 대한 주장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나의 감정과 욕구를 전달하며 말하는 방법입니다.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 I (예시)

문제 상황

- 피구 경기를 하기 위해 모두 신나게 운동장으로 나갔던 체육 시간이었는데 경기가 끝난 후 교실로 돌아오는 아이들의 표정은 처음과 다르게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 울어서 눈가가 붉은 아이, 주먹을 꽉 쥐고 씩씩거리는 아이, 애들 때문에 피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체육 선생님께 꾸중만 듣고 들어왔다고 이르는 아이 등 다음 시간 수업도 제대로 진행 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1 서클 안내

교사 : 선생님은 피구를 한다며 신나서 나갔던 여러분들이 수업 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와서 놀랐어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선생님도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 반 모두와 함께 하는 서클을 열려고 해요.**

교사 : 이 자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 훈내고 비난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자리이고 선생님은 진행자로 모두가 충분히 말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토키피스와 서클의 약속 소개)

2 마음 열기

교사 : 음악을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음악 듣기)
이 음악이 상처받거나 화났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여러분이 음악을 듣는 동안 선생님이 센터피스에 색종이를 몇 장 깔아 놓았어요. 여기 있는 색도 좋고, 여기에 없는 색을 선택해도 좋아요. **지금의 마음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교사 : 선생님은 빨간색을 선택했어요. 붉게 변했던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걱정되는 마음이 불처럼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럼 선생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진이에게 토키피스를 넘길게요.

진이 : 저는 검정색을 골랐어요. 오랜만에 하는 피구인데 혼만 나고 피구는 많이 하지 못해 우울해서 골랐어요.

(돌아가며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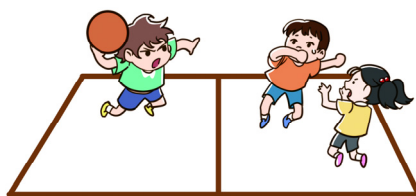
3 사건 이해

교사 :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너희들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었고, 다음 이야기를 들을 때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진이 : 팀을 나눌 때 잘하는 애들끼리 같은 팀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준영 : 공을 잡은 사람이 던져야 하는데, 자기가 더 잘 던진다면 애들이 계속 달라고 소리쳐서 짜증이 났어요.

서우 : 수비할 때 공을 가지고 다른 자리로 옮겨서 던지는 친구들 때문에 경기 흐름이 끊어져 재미가 없었어요.



하나 : 피구를 잘하지 못한다고 저는 계속 수비만 하라고 해서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울었던 것 때문에 체육 선생님이 우리 반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혼내고 경기를 중단시키셨어요. 다 저 때문인 것 같고 친구들이 저를 욕할 것 같아요.

찬서 : 저는 우리 반 모두가 규칙을 지켰으면 좋겠고 피구를 잘하는 몇 명만 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돌아가며 계속 이야기한다.)

4 영향 확인

교사 :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은 점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이 겪은 피해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진이 : 편이 나뉜 것 같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준영 : 하나가 친구들 얘기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서우 : 신나게 놀기 위해서 한 경기인데 혼만 나서 다들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 : 체육 선생님이 우리 반 때문에 화나고 힘드실 것 같아요. 시ूल이는 저한테 “미안해”라고 사과했는데 선생님께도 혼이 나서 속상할 것 같아요.

찬서 : 저처럼 피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체육 시간에 피구를 또 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돌아가며 이야기한다.)





5 피해 회복

교사 :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인뿐 아니라 우리 반 모두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이 : 선생님께서 피구 규칙을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칙을 정확히 알면 규칙을 지킬 것 같아요.

준영 : 공을 잡은 사람이 공격이나 패스할 수 있게 옆에서 공을 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우 : 공격이나 수비를 잘 구분할 수 있게 팀 조끼를 입고 경기했으면 좋겠어요.

찬서 : 팀을 정할 때 짝수, 홀수나 모둠별로 나누거나 뽑기를 하거나 경기 때마다 공정하게 팀을 나누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시울 : 저는 아까 하나한테 계속 수비만 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가 울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앞으로 규칙을 지키고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며 이야기한다.)



6 약속하기

교사 : 우리가 지혜를 모으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나온 의견을 정리해 볼게요. (나온 의견을 정리해 말하기) 혹시 빠졌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을까요?

교사 : **그럼 나온 의견 중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해 볼게요.**

(함께 지킬 약속 정하기)

교사 : 선생님이 약속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팀을 정할 때 뽑기나 홀수와 짝수 등 공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둘째, 팀 조끼로 팀을 구분하고 공격과 수비의 역할을 잘 지킨다.

셋째, 받은 공은 본인이 던진다.

약속에 들지는 않았지만 많은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했던 ‘피구 경기 규칙 다시 알아보기’는 서클이 마무리된 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창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피구 경기를 다시 해보고, 우리가 정한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팀을 정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체육 전담 선생님께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TIP

- 나온 의견을 유목화해 약속을 정해도 됩니다.
- 나온 의견이 많을 경우, 꼭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약속을 다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속을 정하는 방법은 1인당 2~3개의 스티커를 주고 투표하는 방법,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의 단계자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 너무 많은 약속은 아이들의 실천을 어렵게 합니다.

7 느낌 나눔

교사 : 우리가 정한 약속을 잘 지킨다면 서로 즐겁게 경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서클을 하면서 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먼저, 선생님은 문제점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우리 반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고, 끝까지 잘 참여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진이 : 오늘 체육 시간에 하지 못한 피구 경기를 창체 시간에 다시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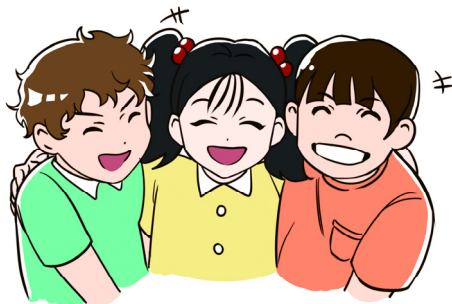
준영 : 친구들이 약속을 잘 지킨다면 싸우지 않고 즐겁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우 :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나 : 서클하기 전에는 친구들이 저한테 화가 났을까 봐 걱정했는데 위로해주고 사과를 해줘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돌아가며 이야기한다.)

교사 : 우리가 정한 약속을 잘 지켜서 우리 반이 서로 존중하는 평화로운 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를 치며 오늘 서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계속 걸어가세요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외롭고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 나가세요.

계속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가장 나다운 내 모습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글배우 - 중에서 18)

18) 글배우(2019),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p.76

4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 II

1:1, 1:다수, 다수:다수의 학생이 특정한 사안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활용하기 적합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갈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잘못을 지정한 뒤 그 행동에 대해 혼을 내고, 문제점을 찾아 사과를 종용하여 형식적인 사과로 마무리가 되면 겉으로는 잔잔해 보일지 몰라도 갈등이 깊어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갈등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서로의 진심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도록 돕는 구조화된 대화모임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 II

1

준비하기

- 개인적 만남 또는 소수의 만남
 - 문제 상황 확인
 - 대화모임 안내와 참여 의사 확인
 - 모임 참여 대상자 초대하기

2

운영하기

- 참여자 모두와 만남
 - 감정 나눔
 - 진심 알기
 - 함께 약속하기

3

확인하기

- 핵심 당사자들의 만남
 - 상황 확인
 - 감사 또는 축하하기
 - (필요시) 약속 수정 및 추가하기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 II (예시)

문제 상황

- 2학년 학생 민수, 진우와 4학년 종혁이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나 종종 함께 놀던 사이입니다.
- 아침맞이를 하는 담임 선생님 인사에 민수는 “어제 놀이터에서 진우와 노는데 종혁이 형이 욱하며 때렸어요. 그거 학교폭력이죠?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1

준비하기

■ 민수, 진우와 만남

교사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민수 : 어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데 종혁이 형이 저한테 큰소리로 욱하고 때렸어요.

교사 : 어디 다치진 않았나요?

민수 : 네, 다치진 않았는데 무서웠어요.

교사 : 다치지 않았다니 다행인데 많이 놀라고 속상했겠네요. 놀이터에서는 종혁이 형과 같이 놀았나요?

민수 : 아니요, 저는 진우랑만 놀았고 종혁이 형은 형 친구들과 같이 있었어요.

교사 : 형이 욱을 해서 무서웠다고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민수 : 큰소리로 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들었을 때 기분 나빴거든요.

교사 : 진우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나요?

진우 : 아니요, 종혁이 형이 크게 얘기하는 건 들었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형이 막 크게 소리 질러 무서웠어요.

교사 : 형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듣기 싫고 무서웠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어요? 맞나요?

민수, 진우 : 네.

교사 : 민수가 놀이터에서 형이 때렸다고 말했는데, 형이 어디를 때렸어요?

민수 : 팔이요, 여기 어깨 밑에 주사 맞는 부분이요.

교사 :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 손등을 한 번 쳐 볼 수 있을까?

민수 : 이렇게요.

교사 : 지금 선생님 손을 치지 않고 밀었는데 형이 민수에게 이렇게 행동한 것이 맞나요?

민수 : 네, 그 정도로 형이 쳤어요. 근데 저는 아프게 느꼈어요.

교사 : 힘든 일을 다시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인데 선생님에게 모두 말해줘서 고마워요.

교사 : 선생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는데 진우도 종혁이 형에게 맞은 곳이 있나요?

진우 : 아니요, 저는 없어요.

교사 : 진우는 이 일과 관련해 선생님에게 더 이야기할 게 있나요?

진우 : 아니요, 없어요.

교사 : 너희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이후에는 종혁이를 만나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 이후에 서로 만나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를 나누며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관찰을까요?

민수, 진우 : 네, 그 형이랑 앞으로 만났을 때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사 :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 이야기 나눠요!

■ 학생 종혁과 만남_종혁이 담임교사와 함께 진행

다른 반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종혁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종혁이 담임교사(진행은 하지 않더라도)도 서클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 : 안녕? 종혁아. 선생님이 종혁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여기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종혁 : 네, 괜찮아요.

교사 : 허락해 줘서 고마워. 선생님은 어제 ○
○아파트 놀이터에서 종혁이와 민수,
진우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는데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종혁 : 네, 저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민수랑 진우가 경비아저씨가 낙엽을 담아 놓은 포대 위에 올라가서 계속 뛰고 장난쳐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교사 : 민수랑 진우가 포대 위에 올라가서 뛰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종혁 : 경비아저씨가 힘들게 일한 건데 거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위험하고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사 : 민수와 진우가 노는 행동이 위험해 보여서 걱정스러웠나요?

종혁 : 네. 포대가 쓰러져서 굴러갈 수도 있고, 경비아저씨가 힘들게 하신 건데 터지면 지저분하고 또 치워야 하잖아요.

교사 : 종혁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 민수와 진우는 무섭게 느껴졌다고 하는데 동생들은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종혁 : 아, 제가 그네에 앉아있었고 개들은 좀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런 것 같아요.

교사 :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내려와”라는 말을 크게 한 것 때문에 동생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혹시 ‘내려와!’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도 했나요?

종혁 : 네, 민수랑 진우가 계속 안 내려오고 장난을 쳐서 나중엔 거칠게 말한 것 같아요.

교사 : 지금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종혁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마음을 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종혁 : 네, 소리만 질러서 동생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교사 :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종혁아. 혹시 어제 민수를 밀거나 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나요?

종혁 : 그건 아닌데요. 저는 계속 친구들과 그네에 있었고, 개들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교사 : 어제 놀이터에서 민수와 진우 근처에는 가지 않았고, 동생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크게 소리만 질렀다는 거 맞나요?

종혁 : 네. 맞아요.

교사 :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해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다면 지금 동생들과 만나 종혁의 마음을 전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대화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종혁 : 저는 괜찮아요.

교사 : 이야기 나누기로 해줘서 고마워요. 선생님이 종혁이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2

운영하기

■ 참여자 모두와의 만남

교사 : 어려운 자리인데 서로 이야기 나누기 위해 함께 해 줘서 고마워요. 선생님은 민수, 진우, 종혁이가 오해나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사 :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을 소개해 줄게요. 선생님은 모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잘 경청해 주고, 하고 싶은 말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하도록 합니다. 이 약속 모두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모두 : 네.

교사 : 선생님은 이 모임 전에 너희들과 각각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 때 들었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해요. 혹시, 선생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모두 : 네.

교사 : 어제 놀이터에서 종혁이는 친구들과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고 민수와 진우는 낙엽을 담아 놓은 포대 위에서 놀았어요. 그 모습을 본 종혁이가 민수와 진우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선생님이 확인한 내용인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종혁 : 없어요.

민수, 진우 : 네, 맞아요.

교사 : 그런데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서로 다르게 이야기한 점이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해요. 민수는 종혁이 형이 어깨를 밀치듯 때려서 아팠다고 했는데 종혁이는 어제 민수와 진우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민수 : 전에 놀이터에서 놀 때 종혁이 형이 때렸어요.

교사 : 민수가 ‘전에’라고 했는데 ‘어제’를 말하는 건가요?

민수 : 아니요. 어제는 아니고요. 전에 놀이터에서 놀 때 종혁이 형이 저 잡으려 와서 어깨를 쳤어요.

종혁 : 선생님, 그건요. 민수가 놀이터에서 저한테 반말하고 놀려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매롱’거리고 까불어서 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때린 거 아니고 민수가 도망가서 잡고 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교사 : 선생님이 들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어제는 종혁이가 민수와 진우 근처에 가지 않은 것이 맞네요.

모두 : 네.

교사 : 그럼 전에 민수가 종혁이를 놀렸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아, 뛰어가는 민수를 종혁이가 잡아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민수 : 네, 그런데 저는 그때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교사 : 종혁아,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이야기해 줄래요?

종혁 : 맞은 것처럼 아팠다고 했어요.

교사 : 그럼, 그 전에 종혁이는 민수가 놀리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종혁 : 다른 사람들 앞에서 2학년이 4학년한테 까부니까 화도 나고 기분이 나빴어요.

교사 : 민수야, 형이 뭐라고 했는지 들은 내용을 말해줄래요?

민수 : 제가 놀려서 화나고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교사 : 종혁이는 민수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종혁 : 앞으로 놀이터에서 놀 때 반말하거나 까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게 잡아서 미안해. 뛰어가다가 잡다 보니까 바로 멈추지 못해서 그랬어.

교사 : 민수도 형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민수 : ‘야’라고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형이라고 하고 놀리지 않을게.

교사 : 어깨를 밀쳤던 문제에 대해서 서로에게 더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민수, 종혁 : 아니요.

교사 : 그럼, 어제 놀이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종혁이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종혁 : 경비아저씨가 힘들게 담아 놓은 곳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포대에서 뛰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서 다칠 것 같아서 걱정되어 내려오라고 한 거야.

교사 : 민수랑 진우는 형이 한 말을 들은 대로 다시 얘기해 볼까요?

민수 : 포대에 올라가면 안 되고 다치니까 내려오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진우 : 걱정했다고 했어요.

교사 : 종혁이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종혁 : 지금은 없어요.

교사 : 민수는 어제 일에 대해 형에게 하고 싶

은 말이 있나요?

민수 : 포대에 올라가는 건 앞으로 안 할게. 그런데 형이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무섭게 말해서 겁나고 정말 무서웠어.

교사 : 종혁아, 민수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종혁 : 제가 무섭게 말해서 겁나고 무서웠다고 했어요.

교사 : 어떻게 하면 무섭고 힘들었던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민수 : 형이 미안하다고 해주고 다음에는 무서운 말 안 한다고 약속하면 좋겠어요.

교사 : 종혁아, 민수 말 들으니까 어때요? 들어줄 수 있나요?

종혁 : 네, 제가 큰 소리로 험한 말을 했으니 그 점은 미안해요. 애들아, 미안해. 이제 큰 소리로 험한 말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가서 말할게.

민수 : 응, 고마워. 형.

교사 : 진우는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진우 : 아니요. 앞으로 놀이터에 만나면 같이 놀고 싶어요.

교사 : 서로 대화하니까 오해도 풀리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오늘 서로에게 약속한 내용을 잘 지켜야 해요. 서로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한 번 이야기해 볼까요?

종혁 : 험한 말을 하거나 큰소리로 소리 지르지 않을게요.

교사 : 종혁이가 말하는 험한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요?

종혁 : 야, 씨○, 존○ 같은 말이에요.

교사 : 어제 놀이터에서 한 말도 그 말이었나요?

종혁 : 네.



교사 : 민수는 어떤 약속을 했나요?

민수 : 형한테 반말하지 않고 ‘메롱’ 하면서 까불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포대에 올라가지 않을게요.

교사 : 종혁이가 앞에서 말한 험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민수도 형에게 반말하며 까불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놀이터에서 만나면 이 문제로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놀 수 있을까요?

모두 : 네.

교사 :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대화모임에 참여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 여기에 담긴 약속을 계속 지킨다면 이번 일로 인해 서로가 받았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게요.

3 확인하기

■ 민수, 종혁과 만남

교사 : 시간을 내 대화모임에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우리가 정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지난 만남 이후로 변화된 것이 있나요?**

종혁 : 놀이터에서 한 번 만났는데 그때 민수가 반말하지 않고 까불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들과 놀아서 같이 놀지는 않았는데 불편하지 않고 괜찮았어요.

민수 : 형을 만나도 무섭지 않아서 놀이터에

서 편하게 놀 수 있어요. 형이 먼저 ‘안녕’하고 인사해줘서 더 기분 좋았고요.

교사 :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도 되고 뿌듯하네요. 혹시라도 생활하다 문제가 생긴다면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힘으로 힘들다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모두 수고했어요.

민수, 종혁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학교 그만 다닐까?

“어떤 학생이 아프거나 학교생활에 지쳐 있으면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수업 시간에 잠시 쉬라고 할 수도 있고 집에 일찍 보낼 수도 있어요. 지쳐 보이는 학생에게는 수업 중간 에라도 잠시 밖으로 나가서 맑은 공기를 쉼고 오라고 합니다.”

크로그는 혹시라도 자기 교실에 좀 더 긴 휴식이 필요한 학생은 없는지 늘 주의 깊게 살핀다. 정말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몇 주 동안 모든 숙제를 면제해준다.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에게는 일단 잠을 충분히 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서 본인이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배려를 받더라도 일단 매일 아침 교실에 나오게 합니다. 매일 학교에 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실 공동체에서 튕겨나가 혼자 고립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동기를 찾지 못하고 의욕을 잃은 학생에게 더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압박을 계속해봤자 효과가 없죠.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면 그들은 곧잘 회복합니다. 또 특별한 배려를 받은 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 그 고마움을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좋은 관계로 이어져 있으면 아이들은 다시 원래의 궤도에 오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사가 신뢰를 가지고 배려하면 아이들은 보답합니다.”

[삶을 위한 수업] 마르쿠스 베른센 - 중에서 19)

19) 마르쿠스 베른센(2020), 삶을 위한 수업, p.175~176



5

또래 조정 알아보기



또래 조정이란?

‘또래 조정’은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또래 친구가 갈등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다툼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나 오해가 쌓여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힘이나 위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왜 또래 조정일까?

■ 학교폭력 예방

또래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해소함으로써 사소한 갈등이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합니다.

■ 실질적 도움

학급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이야말로 미묘한 갈등이나 누적된 갈등을 제일 먼저 알아채기 쉽고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내면의 감정적 앙금을 해소함으로써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앱니다. 그리고 또래들끼리만 통하는 공감대 형성으로 어른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 성장의 기회 제공

또래 조정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또래 조정 경험자는 스스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또한 또래 조정자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력, 자기결정 능력 등 잠재적인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 조성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써 안전하고 밝은 학교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래 조정을 성공하려면?

■ 학교는...

- 학교관리자의 관심과 실천 의지
- 회복적생활교육 실천에 대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합의
- 또래 조정자 교육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 확보
- 교사, 학부모 교육하기(가정통신문, 연수 등)
-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갈등에 대한 이해와 또래 조정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또래 조정 담당 교사는...

- 또래 조정자 훈련에 필요한 외부 강사 섭외
- 또래 조정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 관리
- 또래 조정자 교육 지원과 조정 활동 모니터링

■ 비담당 교사는...

- 조정자 격려
- 또래 조정 기회 부여

■ 학생은...

- 또래 조정자 훈련 참여
- 또래 조정에 자발적이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참여
- 다른 친구들의 문제에 관심 갖고 돕고자 하는 의지
-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 학부모는...

- 학교에 대한 믿음
- 회복적생활교육과 또래 조정에 대한 이해
- 또래 조정자의 정서적, 물리적 지지



또래 조정 교육

또래 조정자가 교육을 통해 갈등과 조정을 이해하고 또래 조정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조정자 기초교육을 통해 조정자로서 기본능력을 기르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조정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또래 조정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를 높입니다.

또래 조정자 훈련은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라보고, 갈등 당사자인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갖게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방법, 문제해결 기술 등 조정자로서 필요한 기술이나 태도를 배우고 익히게 합니다. 또래 조정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또래 조정자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충분히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래 조정 훈련 프로그램은 15~30차시로 교육부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훈련서가 있습니다.

요소	내용	
또래 조정자 기초교육	최소회기	15차시 이상
	교육 중점	기초 조정능력
	교육주제	마음열기/갈등에 대한 이해/조정절차 이해/의사소통/문제해결 기술/전체과정 실습 등
일반학생 또래 조정 이해 교육	최소회기	5차시 이상
	교육 중점	갈등과 조정에 대한 이해
	교육주제	갈등에 대한 이해, 조정절차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비폭력대화)

또래 조정 참고자료

- 2012 또래 조정 서포터즈 양성 심화 연수 자료집(에듀넷)
- 2013 교과부·경실련 갈등해결센터, 학교또래조정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 2014 교육부, 또래조정자 훈련서
- 2018 경기도교육청, 또래에 미치다(또래 조정 자료집)
- 2016 우리교육, 소통 공감의 교실 또래 조정



또래 조정 알아보기

1

또래 조정은 이럴 때

친구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와 다툰 후 다시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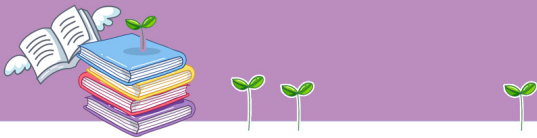


급식 줄을 섰는데 친구가
새치기해서 싸웠어요.



내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서 써요.





2 또래 조정의 단계

■ 또래 조정 단계

- 1단계-환영 및 규칙 설명
- 2단계-이야기하기 및 듣기
- 3단계-갈등 문제 찾기
- 4단계-해결책 찾기
- 5단계-약속하기
- 6단계-격려와 마무리

[1단계] 환영 및 규칙 설명

첫째, 진심으로 이야기하기
둘째, 상대방이 이야기 할 때 끼어들지 않기
셋째, 중간에 가지 않기
넷째,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기



첫째, 진심으로 이야기하기
둘째,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기
셋째, 중간에 가지 않기
넷째,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기

[2단계] 이야기하기 및 듣기



공평하게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친구의 말과 마음을 잘 들었는지 알기 위해
들은 이야기를 말하게 도와주세요.

[3-4단계] 갈등 문제와 해결책 찾기



서로에게 바라는 마음을 알게 해요.

[5단계] 약속하기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요.
[친하게 지내기 → 먼저 인사하기]

[6단계] 격려와 마무리



서로가 원하면 사후모임을 정할 수 있어요.
사후모임에서는 본모임에서 약속한 것이 잘 지켰는지 확인해요.

다 또래 조정의 실제

■ 갈등 상황 접근하기

- 급식 시간에 하준이가 줄을 서지 않고 민성이 앞으로 끼어들어 다툼이 생겼다.
- 그 모습을 본 수현이가 다가와서 두 사람의 가운데에 섰다. 수현이가 말했다. “무슨 일이야? 같이 얘기 좀 해볼까?”

■ 또래 조정하기²⁰⁾

1단계 환영 및 규칙 설명	수현 (또래 조정자)	우리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친구의 이야기도 듣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부탁이 있어. 우리는 모두 말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게 될 거야. (1)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고 자기 차례에 말해주기 (2) 상대방이 말한 것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들은 대로 반복하기. 상대방이 말한 것을 반복하는 건 상대방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야. (3)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 세 가지를 지켜줄 수 있겠니?
	민성, 하준	응, 그렇게.
	수현 (또래 조정자)	나는 누구의 잘못을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야. 단지 너희가 대화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다른 친구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 약속해 줄래?
2단계 이야기하기 및 듣기	민성, 하준	응, 그렇게.
	수현 (또래 조정자)	동의해 주어서 고마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말해줄래?
	민성	내가 먼저 말할게.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하준이가 새치기를 했어.
	수현 (또래 조정자)	(하준에게) 민성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말해줄래?
	하준	내가 새치기를 했대.
	수현 (또래 조정자)	(민성에게) 맞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민성	응, 맞아.
	수현 (또래 조정자)	하준이는 무슨 일이 있었니?
	하준	나는 새치기를 한 게 아니고 앞에 서 있다가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고 다시 선 거야.
	수현 (또래 조정자)	(민성에게) 하준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말해줄래?
	민성	하준이가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고 왔다.
	수현 (또래 조정자)	(하준에게) 맞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하준	원래 앞에 서 있다가 돌아온 거야.
	수현 (또래 조정자)	민성아 들은 대로 이야기해줄래?

20) 경기도교육청(2018),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 ver2.0, p100~101



3단계 갈등 문제 찾기	민성	원래 앞에 서 있다가 돌아온 거래.
	수현 (또래 조정자)	민성아, 그때 기분 이 어땠는지 말해줄래?
	민성	그때 내 기분은 짜증 났어!
	수현 (또래 조정자)	(하준에게) 민성이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말해줄래? (하준이 들은 대로 말한다.) 짜증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성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고 그때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약속했거든.
	수현 (또래 조정자)	약속을 안 지킨 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무엇이 가장 걱정이 돼?
	민성	날 계속 무시할까 봐 걱정돼.
	수현 (또래 조정자)	(하준에게) 민성이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말해줄래? (하준이 들은 대로 말한다.) (민성에게) 맞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민성이 대답한다.)
4단계 해결책 찾기	수현 (또래 조정자)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해결 되기를 바라니? 앞으로 서로에게 바라는 것 이 있다면 무엇이니?
	민성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해한 것 같아. 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다음에는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하준	나도 그래. 내가 먼저 말하고 갔으면 안 싸웠을 텐데 말 안하고 가서 미안해.
	수현 (또래 조정자)	서로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 평소처럼 다시 친해지고 싶다는 거지?
	민성, 하준	맞아.
	수현 (또래 조정자)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민성	줄을 서고 어딜 가야 할 때, 말을 먼저 하고 갔으면 좋겠어.
	수현 (또래 조정자)	민성이는 하준이가 혹시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민성	응, 맞아.
	수현 (또래 조정자)	하준아 들은대로 이야기해줄래?
5단계 약속 하기	하준	내가 줄을 서고 어딜 가면 말을 먼저 해달래.
	수현 (또래 조정자)	(하준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수현 (또래 조정자)	서로 상대방에게 어떤 약속 을 할 수 있니?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해주면 상대방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6단계 격려와 마무리	민성, 하준	(서로 상대방에게 해 줄 수 있는 약속 이야기하기) 예) 급한 일이 있을 때 말로 부탁하기 / “무슨 일 있어?” 물어봐 주기
	수현 (또래 조정자)	그럼, 지금부터 서로 약속을 잘 지키자.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어.
	수현 (또래 조정자)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풀어가자. (또래 조정 활동을 하고 알게 된 것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4 또래 조정 추수 지도

추수 지도는 집중 교육 시간을 편성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조정자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정사례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정자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 또래 추수 지도 주제 예시

순	주제	차시
1	또래 조정사례 공유	1~12차시
2	조정의 어려웠던 점 공유	
3	필요한 조정기술 확인	
4	모의 조정 시나리오 작성하기	
5	모의 조정 실습	



운영 TIP

-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생님께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또래 조정자 훈련 시 공동체 놀이 등 친교 활동도 함께 병행합니다.
- 또래 조정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또래 조정자는 학급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에 즉시 개입하도록 합니다.



Q & A

Q1 단계별 질문 예시를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A1 아닙니다.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말로 바꾸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Q2 모든 단계의 질문을 완벽하게 외워야 할까요?

A2 아닙니다. 질문 예시를 보면서 갈등을 조정하셔도 됩니다. 혹시 학생들의 문의가 있을 때는 서로의 대화를 더 잘 돕기 위해서 참고하는 자료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Q3 단계대로 갈등 조정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A3 학급에서 처음 시도하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갈등을 조정하시면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들도 익숙해져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먼저 쉬는 시간을 활용하고,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 쉬는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Q4 진행이 미숙해서 갈등 해결을 위한 서클을 적절히 운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본 교재에 제시된 서클 활동은 다른 대화모임보다 진행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말속에 숨을 뜻을 파악하며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며, 학생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만 해 주세요. 유의할 점은 서클 진행 시 꼭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입견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보거나 사건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서클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Q5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Ⅰ과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Ⅱ의 각 사례는 차이점이 있나요?

A5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Ⅰ은 학급 전체가 함께 학급의 문제나 갈등 상황을 공동의 지혜로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례이고, 서클로 갈등 해결하기Ⅱ는 사건의 관련 당사자나 목격자만 참여하여 진행한 사례입니다.

학급에 발생한 문제 상황으로 인해 학급의 대다수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면 첫 번째 서클 활동 사례를 참고하세요. 반면에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두 번째 서클 활동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화모임으로 서클을 진행할지는 교실의 상황과 맥락에 맞춰 진행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Q6

또래 조정자를 선발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A6

또래 조정자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또한 또래 조정자 교육은 방과 후 따로 시간을 내어야 하므로 책임감이 없는 경우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자발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학급 임원을 또래 조정자로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이 된 학생은 학급 아이들이 신뢰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친구 문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래 조정자 선발 시 학급에서 두 명 이상씩 짝을 지어 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서로 보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래 조정자 교육 시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7

또래 조정이 실패해서 더 일이 틀어질까 걱정입니다. 또래 조정자에게 맡겨 두는 것이 맞는 걸까요?

A7

아이들의 갈등을 모두 또래 조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교사가 개입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래 조정은 사소한 다툼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또래 조정자가 개입 후에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즉시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또래 조정을 도전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피는 꽃] 도중환 - 중에서 ²¹⁾

21) 도중환(2012), 흔들리며 피는 꽃, p.40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

2007년 버지니아 공대에서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이 있는 지 얼마 뒤에 그곳에 갔을 때 학생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우 감동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32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32개의 기념비 옆에 33번째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바로 조승희를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 혼자 힘들었을 텐데, 오랫동안 혼자서 많이도 아팠을 텐데, 우리가 몰라주어서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외로워했을 때 알아주지 않아서 정말 미안하다. 너를 도와주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줄래?”

버지니아 공대 학생들의 마음이 정말 고맙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승희를 희대의 살인마로만 보지 않고 피해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조승희와 같은 아이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남들과 똑같거나 더 높아지도록 강요당하는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느낀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고, 소통할 대상이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사에게는 그들의 인생을 바꿔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영향력을 무시한 채 교사가 엉뚱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는 멀리 날아갑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교실을 떠나는 순간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특히 8세부터 19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을 관찰할 시간과 기회가 가장 많은 어른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당신과 저, 선생님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실 속 자존감] 조세핀 김 - 중에서 22)

22) 조세핀 김(2014), 교실 속 자존감, p.162~163



제3부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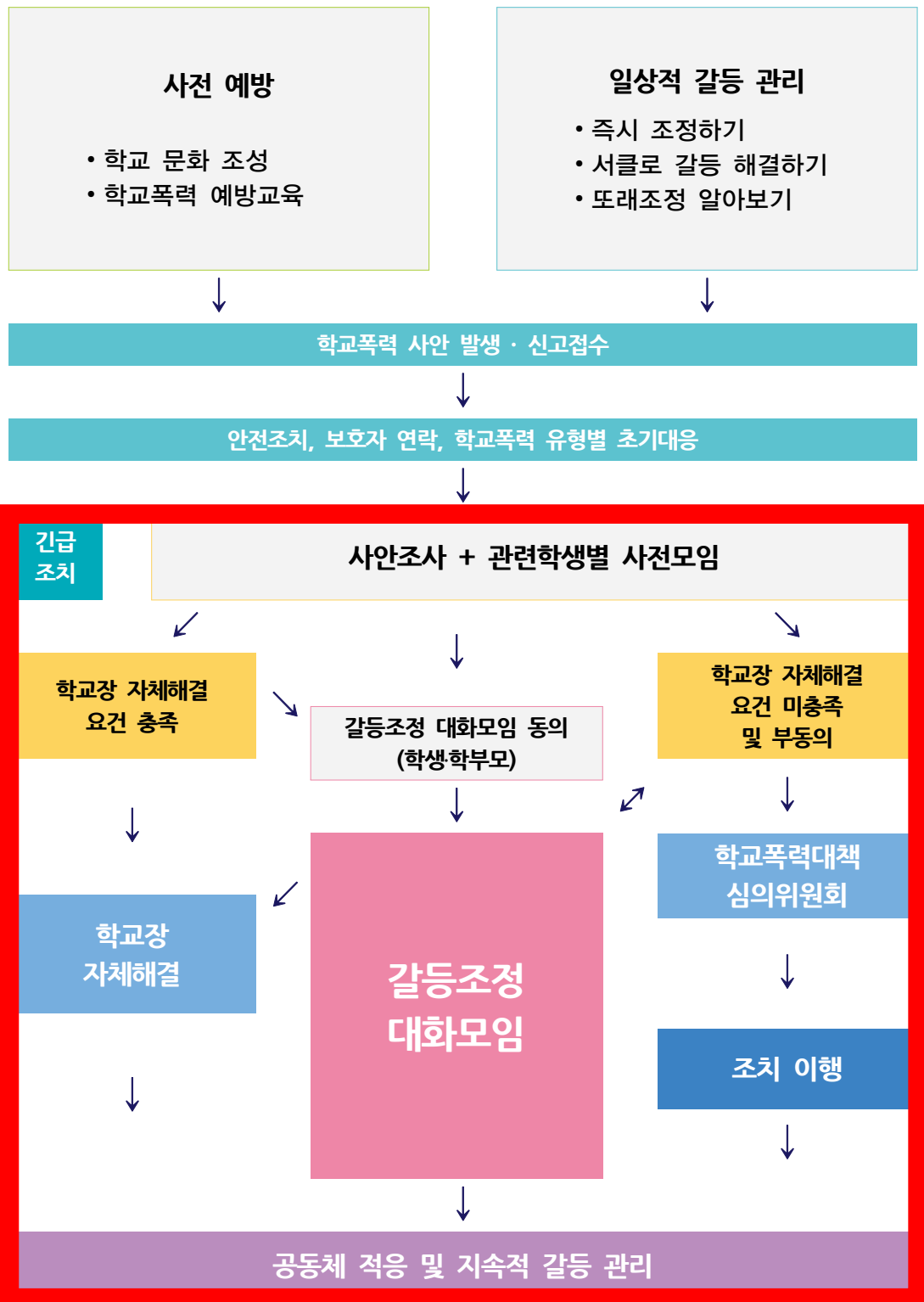
1.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이란?
2. 초기 대응
3. 사안조사
4. 갈등조정 대화모임
5. 학교장 자체해결
6. 조치 이행
7. 사안 갈무리

이번 장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공동체의 치유와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소개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및 진행 과정을 소개합니다.
- 피해학생의 회복과 치유, 가해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적 관점을 소개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갈등 관리 체계



1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²³⁾

제1조(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는 관련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하여 법과 지침에 명시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절차에만 몰입하면 교육적 목적을 도외시하게 됩니다. 교육적인 방향성을 잃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이행한 후에도 당사자들은 학교폭력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적 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사안을 통하여 학생이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충분한 대화는 관련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피해 회복 및 책임 이행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 회복과 성장에 대한 바람을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복잡한 심정이 뒤엉켜 입장에 따라 서로 엇갈린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회복과 성장에 대한 마음만은 입장을 떠나 일치합니다. 이 마음을 꾸준히 자극하고 서로에게 드러내어 연결하는 것이 평화적 해결의 핵심입니다.

23)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갈등이 폭력적 양상으로 번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이어지는 서로를 존중하는 교우관계 및 학급공동체의 평화적 분위기 형성과 지속, 위기를 다루는 통합적인 관점의 교육활동이 필요합니다.

□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예시)

	1학기	2학기	학기별 학생/학부모/교직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 초	첫 만남 서클 학부모 서클 존중의 약속 만들기	다시 만남 서클 존중의 약속 수정 보완하기	
학기 중	공감서클 / 학급자치 서클		
학기 말	격려, 지지 서클 / 학기(년) 돌아보기 서클		

■ 일상적 갈등 관리

- 학생이 가진 개인적 성향과 그 성향들이 얹히는 관계 안에서 학교폭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교육 및 그 외의 활동을 실천한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갈등은 폭력적 양상으로 심화되기 전, 여러 징후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학교폭력을 감지, 인지²⁴⁾하여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과 더불어 일상에서 갈등을 발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 학생에게 기울여 온 관심은 신뢰를 쌓아 적극적이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추후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돕습니다.
- 갈등을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갈등을 풀어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해결자를 자처하는 접근은 교사마저도 갈등의 수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 최선을 다해 갈등을 예방했음에도 학교폭력으로 심화될 경우,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하여 대응합니다. 교사의 관찰과 상담 외에도 학교폭력 신고함, 온라인 게시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필수적으로 활용합니다.

24) 감지 :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

인지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통보, 언론 및 방송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2 초기 대응



신고 및 접수

- 학교폭력 신고는 사안이 신고자(피해자 또는 목격자)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었음을 뜻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진지하게 접근합니다.
- 신고자의 신고를 수용함을 안내하고 비밀 유지, 적절한 대처를 약속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신고내용을 신고 대장에 기록하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립니다.
- 신고 접수된 내용을 학교장/담임교사/학부모/교육지원청에 알립니다.
- 관련학생에 대한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한 2차 피해(신고자,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주변 학생)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운영 TIP

-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에 대한 내용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1)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긴급 조치

-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 결정 전이라도 긴급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 방안 적용(2021. 6. 23.부터 시행)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개정(2020. 12. 22.)에 따라 2021. 6. 23.부터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신고, 발견, 확인 등)한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를 해야 합니다.
- 학교장 판단에 따른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폐지되나, 피해학생 요청에 따른 학교장 긴급 보호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 결정 전이라도 긴급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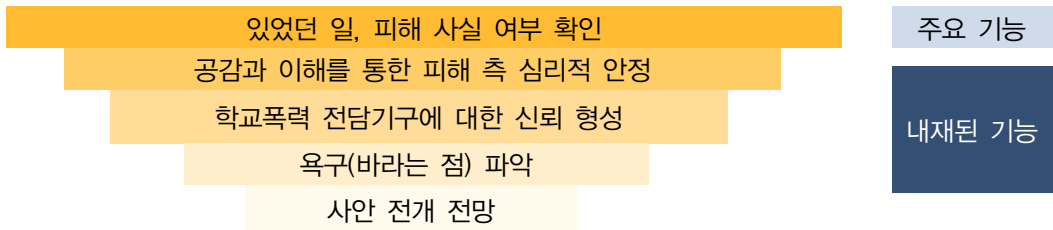
3

사안조사



사안조사는 평화적 해결의 기반 조성 과정

- 사안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로 명시된 중요한 절차이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입니다. 피해학생 사안조사의 주요 기능은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요 기능에만 매몰된 사안조사는 관련학생 측의 학교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혼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안조사에 내재된 기능을 염두에 두고 사안조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학교폭력 사안의 평화적 해결의 핵심 사항은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가해학생의 책임 이행입니다.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관련학생의 ‘자발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자발성 없이는 회복도, 책임 이행도, 그 후에 이어지는 성장도 어렵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에서 자발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 vs 가해” 구도입니다. 이 구도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가 사안처리의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은 자발성을 발휘할 수 없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모면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vs 가해” 구도에서 벗어나 가해학생이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한 영향을 직면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도록 사안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관련학생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

학교폭력이라는 첨예한 대립 관계를 마주한 관련학생과 학부모는 불안정하고 예민한 심리상태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는 학교폭력의 평화적 해결에 미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안조사를 위한 첫 만남에서는 철저하고 섬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마음이 열리고, 비로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지 방법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직접 당사자 교실로 가기보다는 담임교사를 통해 요청합니다.

■ 시간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학부모 동의하에 방과 후 시간 등)

■ 장소

집중하여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출입이 제한되고 조용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예 : 상담실, 연구실, 보건실, 특기적성교실, 관련학생 소속 학급 교실)

■ 기타

긴장을 풀도록 관련학생을 위한 음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음료로 인하여 대화모임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한 편안한 주제로 대화 시작을 준비합니다.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지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위한 준비는 동일합니다.



관련학생 사안조사 단계

- 사안조사 단계 순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상황 이해, 감정 이해, 욕구 확인’ 단계는 포괄하여 하나의 단계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단계로 진행되더라도 그 안에서 상황과 감정 이해, 욕구 확인 단계는 필요합니다.

1. 진행 과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교사 소개 - 안전한 공간임을 알려주기
2. 상황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 - 사안의 영향(피해) 확인하기 - 들은 이야기 요약하기
3. 감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하지 않고 듣기 - 말 속에 숨겨진 감정 읽기
4. 욕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욕구(바라는 점) 확인하기
5. 갈등조정 참여 의사 확인 및 절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조정 대화모임의 취지 안내 및 의사 확인
6. 학부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상담 내용 전달 및 의견 청취, 의사확인



1 진행 과정 안내

심리적 안정을 주며 신뢰를 형성합니다.

- 본격적인 사안조사에 앞서 **피해학생의 심리에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표면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혼돈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을 처벌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면 사안조사는 교육적 과정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처벌을 위한 사안조사는 가해학생을 더욱 방어적으로 몰게 되고 자발적 책임 이행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분위기 안에서 가해학생과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형성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설명 시 도움주기를 약속하여 신뢰를 형성합니다.

자기소개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책임교사예요.
역할 안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여 평화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공감	○○가 겪은 일(학교폭력 사안)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도움 약속 및 신뢰 형성	앞으로 ○○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를 도울 수 있게 선생님을 믿고 따라주세요.
사안조사 및 유의사항 안내	이 자리에서는 ○○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이 사안과 관련이 있는 친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거예요.

운영 TIP

- 녹음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 담임교사에게 사전협조를 구해 학생의 성향, 주의점 등을 미리 알아둡니다.
- 학년 수준, 심리상태, 성향에 따라 학교폭력 책임교사와의 대화를 어색해하거나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생이 발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학생의 설명으로 사안을 이해하고 관계를 파악합니다.

■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학생이 ‘학생 확인서’를 미리 작성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다소 장황할 수도 있는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우발성’과 이전에 형성된 관계가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집니다.

사안조사에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집중하면 관계의 연속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연속성은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평화적 해결과 관계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 TIP

- 담임교사와의 사전면담을 통해 대략적인 사안을 파악합니다.
- 면담내용을 기록하면서 학생의 표정과 목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말을 가로막거나 가해학생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학생이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끄덕임, 짧은 대답으로 꾸준히 반응하며 경청합니다.

사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가해학생과 그 영향을 짚어봅니다.

■ 가해학생 사안조사는 피해학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전담기구는 사안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있었던 일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가해학생의 설명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게도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다각도에서 상황 이해가 이루어지면 피해, 가해 측 입장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안조사는 전담기구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있었던 일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이해한 후에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영향(피해)을 찾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TIP

- 취조나 심문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합니다.
-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이끌어 냅니다.
[~라는 일이 있었던 거 맞나요? ➡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학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되, 기존에 파악된 사항과 어긋나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 사안을 파악합니다.

3

감정 이해

피해학생의 감정을 찬찬히 읽어줍니다.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학생의 심리·정서에 집중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심리·정서적 피해는 자칫하면 고착화되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정서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주변의 정서적 지지(공감, 격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책임교사의 감정 이해와 정서적 지지는 피해 회복에 이바지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도록 이끍니다.

운영 TIP

-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로서의 중립성을 지키며 상담합니다.
- 감정카드나 욕구목록 등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교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 가해학생에게도 공감 받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이 가해로 인한 영향(피해)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피해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해학생도 공감 받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 가해학생이 가진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은 미안함, 죄책감, 불안함, 당혹감, 분노, 수치심 등 복합적인 감정을 가집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기에 감정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안함이 앞서면 책임을 회피하고 수치심이 앞서면 교사(학교, 학급)나 피해학생,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보호자에게까지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표현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감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운영 TIP

- 교사는 열린 질문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게 하되, 교사가 동의하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 진짜 억울하겠다. (X)
- 자신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의 감정은 수용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정당성은 부여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욕구 확인

회복을 위해 피해학생이 진정 바라는 점을 함께 탐색합니다.

■ 어느 부분으로부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탐색합니다.

피해학생이 사안 해결에 대해서 바라는 점은 곧 피해학생이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바람이 담긴 표현이 모두 회복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은 무기력감이나 자책을 표현하기도 하고 가해학생을 향한 보복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통해 채워줄 수도 없을뿐더러 피해 회복의 본질과도 동떨어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 지적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회복지점을 탐색하도록 안내합니다.



가해학생이 바라는 점은 자발적 책임 이행과 연결됩니다.

■ 비판하기보다는 다양한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욕구확인 은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해 사실 시인, 책임 이행, 수용적 태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해학생의 욕구를 탐색하면 오히려 반작용을 가져옵니다.

■ 다양한 욕구를 꼼꼼히 탐색합니다.

가해학생이 가진 욕구를 충분히 탐색하고 표현하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채울 수 있는 욕구, 일상에서 노력하여 채울 수 있는 욕구, 피해학생과의 소통을 통하여 채울 수 있는 욕구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면 가해학생의 욕구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알고 싶고 가해학생도 이를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학교 측에서 이러한 욕구를 바탕으로 진심이 오가기 위한 대화모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운영 TIP

-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게 이끕니다.
(예) (학생) 잘 해결되면 좋겠어요. ➡ (교사) 어떻게 해결되면 잘 해결되는 거예요?
- 욕구 확인 단계는 감정 이해 단계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두 단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감정을 통하여 욕구를 탐색하도록 상담할 수 있습니다.

5

갈등조정 참여 의사확인 및 절차안내

피해학생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 자발적 참여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갈등조정 대화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 회복과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됩니다. 아무리 관계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대화모임에 대한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화모임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화모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피해학생이 추구하는 실익이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사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절차를 안내하고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사안조사를 마무리하며 ‘학생 확인서’를 제출받고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해학생 스스로를 위하여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 욕구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채울 방법을 탐색합니다.

바라는 점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가해학생이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하며, 교사와 함께 실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 책임 이행을 위해서는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갈등조정 대화모임은 피해, 가해학생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입니다. 대화모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에 대한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는 이미 책임이행을 위한 용기 있는 한 걸음입니다. 반대로 자발성이 결여된 대화모임에서는 오히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 TIP

- 즉답을 요구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 대화모임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상관없이 언제나 열려있음을 안내합니다.
- 대화모임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립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 ‘학생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양식을 참고합니다.

6 학부모 상담

확고한 기준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상담해야 합니다.

- 학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가 용기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학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공감은 사안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에 원동력이 됩니다.
- 학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협조적이고 유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에 대한 노력, 치우침 없는 중립성**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학부모의 반응을 대했을 때, 당황하여 실수하고 사안처리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학부모 상담은 또 하나의 사전모임입니다.

- 학부모 상담과정은 또 하나의 사안조사이자 사전모임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과 같이 “진행 과정 안내 - 상황 이해 - 감정 이해 - 욕구 확인 - 의사 확인 및 절차 안내”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며 상담합니다.

진행 과정 안내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설명하기
상황 이해	-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누락이나 자의적 해석X)
	- 사안 발생 이후 양측이 오고 간 소통상황이 있을 경우, 사안조사 보고서에 기록하기
감정 이해	- 충분히 공감하기
욕구 확인	- 학생의 피해회복에 집중하여 상담하기
	- 학생의 관계 및 배움, 성장에 집중하여 상담하기
	-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여 설명하기
	- 향후 학교에서 피해/관계회복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협의하기
의사 확인 및 절차 안내	- 대화모임,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사후 교육적 조치를 자세히 안내하기
	- 대화모임에 대한 참여 의사 확인하기

운영 TIP

- 통화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면 상담에 비하여 오해가 쌓이기 쉬우므로 단어 선택에 주의합니다.
- 상담 이후 보호자 확인서를 통하여 상담 내용을 확정합니다.



관련학생 심리 체크리스트

- 관련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 상태를 체크해보면 감정 및 상황 이해, 욕구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피해학생/학부모의 심리

내용	확인
• 낮아진 자존감	
• 정신적, 신체적 고통	
• 재발에 대한 위기의식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	
• 가해 측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	
•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고픈 마음	
•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	
• 현 상황까지 악화된 것에 대한 원망	
• 가해 측에 대한 보복 심리와 공격성	
•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막연함과 불신	
• 자신을/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 괜한 일을 만든 것 아닌가 싶은 부담감	
• 가해 측의 잘못을 주변에 알리고픈 마음	
•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 가해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피해로 인정받고픈 바람	
• 상대방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후회	
• 다른 학생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 자신이/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교육적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	



■ 가해학생/학부모의 심리

내용	확인
• 낮아진 자존감	
• 처벌에 대한 두려움	
• 피해 측에 대한 미안함	
• 죄인으로 취급받는다느 억울함	
• 주변인들을 실망시켰다는 낙담	
•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책임감	
•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	
• 저지른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후회	
•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막연함과 불신	
•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자기합리화	
•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뻔뻔함	
•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 “하필 이번에는, 왜 나만”이라는 책임회피	
• 자신의 행위 이상으로 힐난 받는다는 분함	
•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피해 측에 대한 원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에 대한 염려	
• 피해자가 당할 만한 일을 했다는 책임 전가	
•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수치심	
• 잘못된 일을 알았을 때 멈추지 못했다는 자책감	
• 평소 관계의 틀어짐으로 인하여 트집잡혔다는 답답함	
• 이번 일을 잘 넘기면 앞으로 잘 지낼 것이라는 기대감	

■ 확인된 심리를 근거로 전담기구 스스로 질문하여 평화적 해결 계획하기

- 전담기구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어떤 표현을 통하여 심리를 파악할 수 있었는가?
- 끌어올려야/낮추어야 하는 심리와 그 방법은 무엇인가?
- 다른 관련학생 측과 일치하는 심리가 있는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전담기구가 사안을 처리하는 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갖출 것인가?



절벽 위에서 독수리가 되어 날아가는 꿈

“전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자유스럽습니다.”

슬럼버가 반대쪽 목발을 들어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다.

“13살 때,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 처음으로 동물이 되는 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이었죠.”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모두가 제 꿈을 듣고 극한의 자유를 느꼈다는 찬사를 보낼 때, 어린 저는 자유의 불완전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꿈에서는 걷고 뛰고 날 수도 있는 저는, 꿈에서 깨어나면 그러지 못합니다. 바다를 누비는 범고래는 땅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바다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정도와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생명은 제한된 자유를 누립니다.”

릭 슬러버는 카메라 렌즈와 객석을 번갈아 보았다.

“여러분은 언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대화하듯 말을 건넸다.

“여러분을 가둬두는 것이 공간이든, 시간이든, 저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든... 부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는 동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기분이 드는 날도 있을 겁니다. 올해의 제가 바로 그랬죠. 저는 이번 꿈을 완성하기 위해 천 번, 만 번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벽 아래를 보지 않고, 절벽을 딛고 날아오르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 독수리가 되어 훨훨 날아오르는 꿈을 완성할 수 있었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꿈이, 그런 여러분에게 영감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큰 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 중에서 ²⁵⁾

25) 이미예(2020), 달러구트 꿈 백화점, p.215~216



4

갈등조정 대화모임



갈등조정 대화모임은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 갈등조정 대화모임에 의한 피해/가해학생의 변화

피해학생		가해학생
있었던 일과 그로 인한 피해를 토로하며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정리한 후, 만남을 선택함	사전모임 (사안조사)	사안을 객관화된 시선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함. 이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정리하고 만남을 선택함
가해학생을 만나서도 안전함을 확인하며 자신의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는 용기로 피해회복/성장의 기회를 모색함	만남 (직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직면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있었던 일과 그 영향을 이야기하며 자기표현의 욕구를 채움 상대의 경청을 통하여 대화모임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확인함	소통 (표현·경청)	있었던 일과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진지함을 드러냄 상대의 경청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가짐
공감 받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엿봄	공감	입장을 바꾸어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공감함
피해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음 희망을 모색함	책임인정	피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함
피해회복을 위하여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그 사항을 조정하여 약속받음	합의, 대안모색 책임 이행 약속	반성을 이어가기 위하여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지 탐색하고 실천을 약속함
책임 이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해나감	책임 이행	책임을 이행하며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음
책임 이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관계의 변화를 확인함	관계회복	책임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고 재발방지를 약속함

■ 대화모임의 목표

대화모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피해회복입니다**. 대화모임을 통하여 관계회복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이겠으나 피해학생의 회복이 있다면 대화모임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조정자가 관계회복을 목표로 진행하면 참여자로 하여금 화해 중용, 학교장 자체해결 유도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평화적 해결의 열쇠는 당사자에게, 학교는 인도하는 역할

대화모임은 모두가 알다시피 만능해결책이 아닙니다. 대화모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학교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대화를 희망하는 의사와 대화를 통하여 채우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 안전한 대화모임을 위한 준비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화모임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대화모임에 능숙한 조정자
- 대화모임을 위한 질문과 진행²⁶⁾
- 참여자의 대화모임 목적 공유
- 안전한 대화를 위한 약속²⁷⁾
- 사안조사를 통한 참여자의 느낌과 욕구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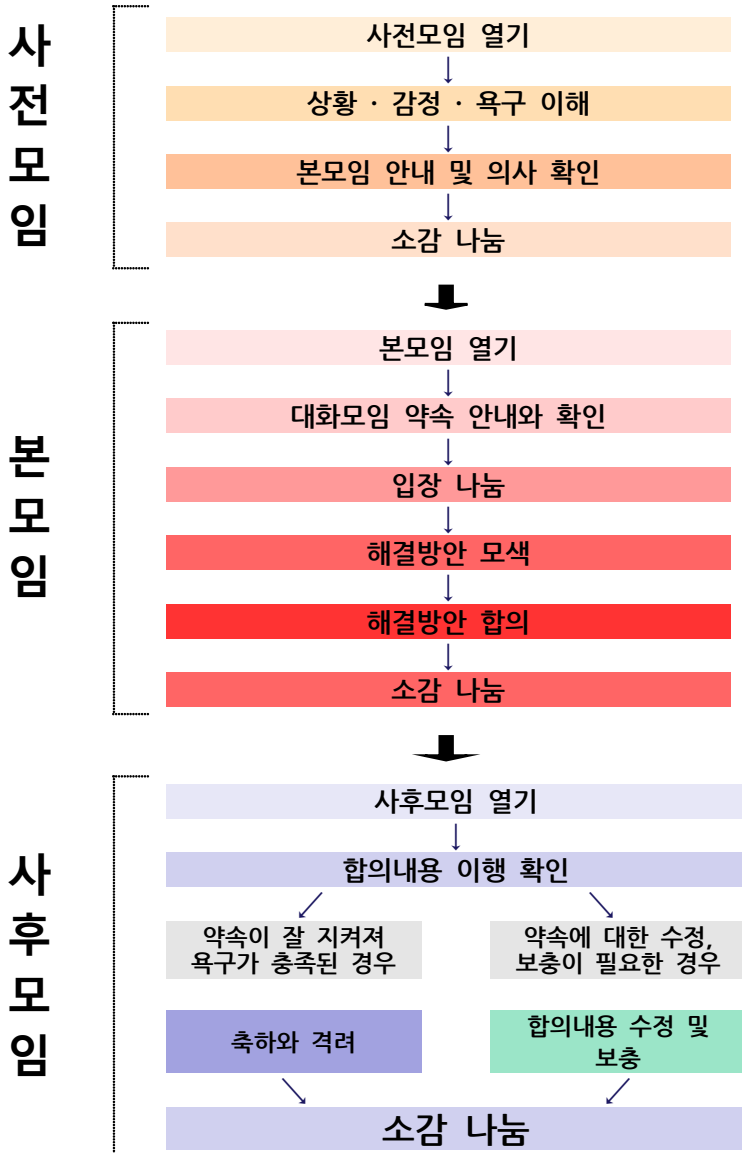
26) p.102~104 대화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예시), p.105 본모임 준비 체크리스트

27) p.101 조정 기본 규칙 참고



갈등조정의 흐름

갈등조정은 사전모임-본모임-사후모임의 흐름을 가집니다. 실제 당사자들이 만나 갈등을 조정하는 시도는 본모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본모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사전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모임은 필요한 경우 여러 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모임에서 합의된 사항을 점검하는 사후모임 또한 빠져서는 안 됩니다.



■ 사전모임

- 대화모임의 필요성 및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반드시 관련학생별로 각각 사전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 경청과 공감의 태도로 대화합니다.
- 대상자들을 확인하고 갈등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 파악합니다.
- 갈등조정을 염두에 두고 사안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를 사전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전모임은 본모임의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본모임

- 서로의 피해와 요구 등을 확인하고 조율해가는 단계입니다.
- 본모임에 필요한 것들을 체크리스트²⁸⁾로 준비합니다.
-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행 과정을 충실히 지킵니다.
- 진정성 있는 마음이 전달되는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행 과정을 신뢰하며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 사전모임에서 드러난 갈등과 서로의 입장, 쟁점을 분석하여 질문을 구성합니다.
- 공정성 시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과 같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모임

- 본모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본 대화모임의 영향과 합의된 약속의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 합의된 약속이 잘 지켜졌을 경우, 축하와 격려, 칭찬을 합니다.
-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원인을 찾아 새로운 합의를 만듭니다.

28) p.105 본모임 준비 체크리스트



대화모임을 위한 환경 준비

갈등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학생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마음이 열리고, 비로소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에, 관련 학생을 만나기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공지 방법

- 담임교사가 진행할 경우 관련학생이 편안하게 여기는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여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 담당 교사가 진행할 경우 당사자 교실로 가기보다는 담임교사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

-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보호자 동의 필요)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소

- 학생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전하면서 외부 소음이 차단된 곳을 선택합니다. (학급 교실, 상담실 등)

■ 기타

- 학생이 혼자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할 경우, 지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대한 이야기는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합니다.
-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음료를 마실 수 있지만 간식 등으로 인해 대화모임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갈등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보다 학생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날씨 이야기, 지금 마음을 색깔로 표현하면~ 등



조정 기본 규칙²⁹⁾

■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청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거나 발언권을 얻어 말해야 합니다.
사안의 진실을 이해하고 서로가 원하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비방이나 욕설이 섞인 언어 사용을 자제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데 방해가 되는 심한 비방이나 언성을 높이는 일을 자제하고 조정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조정대상인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갈등조정 대상인 사안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하여, 이전의 일이나 다른 사안의 갈등이나 감정까지 확산하여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 사적인 이야기의 비밀을 준수합니다.

본모임에서 말한 내용, 대화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행동이 필요하면 조정자의 동의를 구합니다.

약속한 휴식 시간 이외에 개인의 특별한 상황으로 휴식이나 긴급한 용무가 필요하면 조정자의 동의를 얻고,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29) 경기도교육청(2014),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 p.143 참고

조정의 규칙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임의 상황에 따라 가감하되 너무 많은 규칙을 제시하기보다는 간단하고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예시)

■ 사전모임

단계		질문(상황) 예시
도입 및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자 소개 및 참석자 확인 환영 • 대화모임의 의미와 조정자의 역할 안내
대화 나누기	상황 이해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무엇이 중요해서 그랬는지 말해 줄 수 있나요? • 그 일로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피해 초점 영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일로 누가 힘들었을 것 같나요? •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 그 일로 인해 지금 본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피해회복 자발적 책임에 대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나요? • 피해가 회복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염려되거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참여 의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모임에 참여해서 오늘처럼 이야기할 수 있나요? • 본모임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와 소감 나누기		모임에 대한 소감 말하기

■ 본모임

단계		질문(상황) 예시
도입 및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자 소개 및 참석자 확인 환영 • 대화모임의 의미와 조정자의 역할 안내 • 대화모임의 진행방식, 기본 규칙 설명
입장 나누기	상황 이해	<p>[피해관련 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일이 있었나요?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 그 일로 인해 지금 몸과 마음의 느낌은 어떤가요? • 상대방의 행동에서 무엇이 가장 속상했나요? • 상대방(생각,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나요? • 그 일에 대해 부모님과 친구들이 알고 난 뒤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p>[가해관련 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일이 있었나요?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 그 일로 인해 지금 몸과 마음의 느낌은 어떤가요? <p>[기타 참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피해 초점 영향 파악	<p>[피해관련 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일로 인해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 그 일로 인해 선생님, 친구, 부모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p>[가해관련 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이야기로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 그 일로 상대방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들었나요?(생각하나요?) • 상대방의 힘든 점을 들으니 지금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해결방안 모색 합의		<p>[가해관련 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 상대방의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있나요? <p>[피해관련 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약속을 듣고 추가로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이렇게 약속하면 충분할 것 같나요? 혹시 추가할 것이 있나요?
감사와 소감 나누기		모임에 대한 소감 말하기



■ 사후 모임

단계	질문(상황) 예시
환영/근황 나누기	• 근황 묻고 부드러운 분위기 형성
합의 내용 확인하기	• 지난 모임에서 정한 서로의 약속을 말해볼까요?
대화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모임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 서로 합의한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p>[잘 지켜지고 있는 경우] 축하와 격려, 칭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노력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이 있나요? •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배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p>[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 약속의 수정·보완, 독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되는 것이 있나요? •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 수정·보완된 약속을 정리해 봅시다. •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감사와 소감 나누기	모임에 대한 소감 말하기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한 다짐 말하기

※ 학교폭력 갈등조정 대화모임 사례: p.114 [부록]





본모임 준비 체크리스트³⁰⁾

번호	준비사항	준비	미흡	조치 사항
1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는가?			사전모임 보고서 참조
2	주 조정자의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주 조정자: 협력 조정자:
3	당사자들에게 확인 연락은 누가 할 것인가?			협력 조정자가 완료
4	주 조정자와 협력 조정자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주 조정자: 진행 등 협력 조정자: 기록, 피해자 보호 등
5	쟁점이 명료하게 파악되었는가?			
6	단계별 질문 구성은 적절한가?			
7	예상되는 대화모임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쟁점 대립 학부모 간 감정 과열 학교 불신 등
8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 보지 않도록 편안하게 좌석을 배열하였는가?			
9	개별 접촉을 위한 분리된 공간, 음료, 화장실 등은 확보되었는가?			모임 공간 양옆에 분리 공간 마련
10	개별모임과 쉬는 시간은 언제 필요한가?			40분마다 협력 조정자가 신호 보내기
11	대화모임 시간과 횟수를 예상할 수 있는가?			
12	필요한 양식이나 장비는 모두 준비하였는가?			
13	대화모임이 아닌 다른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14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미래의 조정자 역할은 무엇인가?			사후모임 진행 등
15	합의서, 기본 규칙 등 대화모임 관련 문서가 준비되어 있는가?			

30) 김민자와 3인(2019), 학교를 살리는 회복적 생활교육, p.227



갈등조정 대화모임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대화모임은 학교폭력에 대한 축소, 은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보이는 미묘한 태도에 따라 오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대화모임을 운영하려면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 오해1. 대화모임은 가해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심의 조치를 경감시키기 위한 시도 아닌가요?
- 진실1. 대화모임 진행은 사안처리를 갈음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 대신 진행하여 조치 변경 또는 경감 등의 조건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화해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오해2. 갈등조정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유도하는 과정이죠?
- 진실2.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에 서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등조정 대화모임에 참여한다고 해서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 오해3. 갈등조정 대화모임은 학교가 편해지려고 하자는 거죠? (업무경감)
- 진실3. 대화모임을 진행한다고 해서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지 않습니다. 대화모임과 관계없이 심의 위원회가 진행되기 위한 모든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오해4. 화해하라는 거잖아요.
- 진실4. 갈등조정 대화모임이 지향하는 목표는 관계회복(화해)이지만 1차적인 목표는 소통입니다. 화해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소통 과정까지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욕구를 털어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소통 과정은 관련학생에게 회복과 성장의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Q & A

Q1 교내 갈등조정은 누가 진행하나요?

A1 학급 내에서 일어난 경우 담임교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교사로 한정된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 책임교사, 상담교사, 교감 선생님 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인력이 부족하다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갈등조정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 사전모임-본모임-사후모임의 순서를 꼭 지켜야 하나요?

A2 사전모임의 목적은 조정자가 갈등상황의 맥락을 파악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후모임은 합의된 약속의 이행정도를 파악하며 공동체의 재통합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지켜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별로 한 번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3 사전모임 시 학생을 면담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3 사전모임을 할 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피해학생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필요를 인지하고, 학교 구성원이 이를 지원할 때 평화로운 갈등조정이 가능하기에 피해학생을 먼저 만나도록 권장합니다.



5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이 반드시 관계회복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사안이 관계회복으로 마무리되면 이상적이겠으나 당사자들이 가지는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피해회복과 이후 교육 활동의 정상적 참여를 목표로 양측이 약속하고 추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는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³¹⁾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관련학생들이 속한 공동체까지 상흔을 남깁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안처리만이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이후까지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영 TIP

-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종결하려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을 동의한 후에는 동일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약속한 재산상의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학교폭력사안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1) 교육부(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6

조치 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 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학급교체), 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가해학생 선도조치

-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처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심의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원이 아닌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었으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또한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입니다.

■ 조치 통보 후 학교는 조치 이행에 협조

학교폭력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로 이어지면 ‘학교폭력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조치가 결정되고 통보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조치 이행 후 학교의 역할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관련학생들이 속한 공동체 모두에게 상흔을 남깁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피해학생의 용서와 회복을 중심에 두는 교육적 목적으로 갈무리하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

사안 갈무리



사안의 종결은 끝이 아닌 시작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갈등조정 대화모임,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조치 이행 등을 거쳐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사안처리는 끝나더라도 학생들의 일상과 교육활동은 이어집니다. 갈등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갈등을 통해 학생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면 반드시 약속(조치 이행 및 합의 사항 등)이 생깁니다. 이 약속 사항은 학교폭력사안의 영향을 같음하는 중요성을 가지며 공문서로도 기록됩니다.

■ 만남에 대하여 상호동의 후 보다 진전된 갈등조정 대화모임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화모임에서는 약속 이행을 확인하며 잘 지켜지고 있다면 축하와 격려를, 그렇지 못하다면 약속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약속을 수정, 보완합니다.

■ 학교폭력의 영향이 파·가해학생의 일상에 전이될 수 있습니다.

관련학생들은 사안을 극복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의 영향에 갇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영향에 갇힌 학생은 또 다른 사안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과 상담하며, 여러 지원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학생의 가족과 담임교사, 또래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학생의 공동체 적응과 학급공동체의 정상화

■ 공동체 적응 지원을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관련학생이 속한 공동체(학급, 또래집단)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사안을 공개하지 않고도 공동체 적응을 돕는 방법은 많습니다. 학급에서 공동체놀이를 하거나 마니포 활동 등의 활동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공동체 적응을 돕는 활동은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체 적응을 돕는 활동은 사후활동뿐 아니라 사안을 처리하는 중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지원은 관련학생의 적응과 함께 관련학생 측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 구축과 사안의 교육적, 평화적 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 공동체 적응 활동은 모두를 위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관련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관련학생이 속한 공동체에 큰 파장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작동한 영향력은 학급의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안전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 공동체 회복 활동

공동체 회복 활동은 담임교사가 계획할 수도 있고, 학교 차원의 지원이나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학교폭력사안으로 불안, 긴장을 겪은 학급의 회복을 위한 활동 예시입니다.



예시) 격려지지 서클 ³²⁾	
1차시	<p>여는 질문 : 서로의 마음의 색깔 확인하기</p> <p>공동체놀이 : 나도! 나만?, 별칭 릴레이, 협동 풍선 띄우기 등</p> <p>힘들었던 경험 글, 그림으로 표현하기</p>
2차시	<p>친구의 활동지에 격려와 지지의 롤링페이퍼 작성하기</p> <p>직접 격려와 지지의 말 건네기</p> <p>생각과 느낌 나누기</p>

32) 경기도교육청(2018),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ver2.0(초등) p.90~118



부록



[부록] 갈등조정 대화모임 사례

체육 시간 축구 경기 도중 일어난 갈등(언어폭력 및 신체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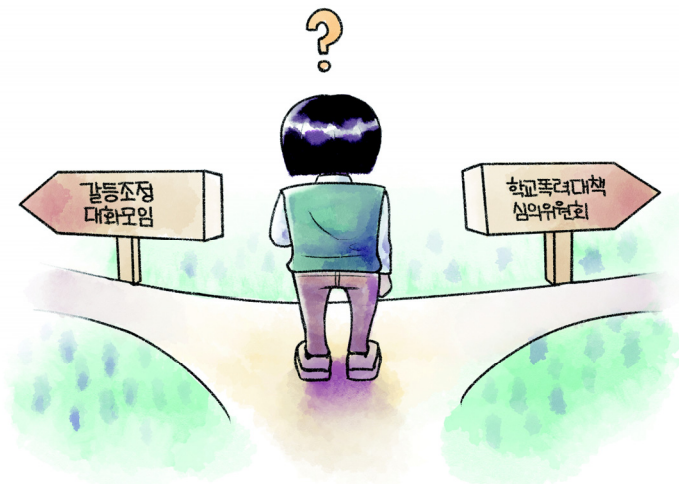
종국이와 석진이는 운동을 좋아하고, 방과후에 어울려 놀기도 하는 같은 반 친구 사이이다.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에 계속 지는 것에 화난 석진이는 같은 편인 종국이에게 거친 말이 석인 비난과 함께 욕설을 했다. 욕설과 비난이 반복되자 종국이가 석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가격 장면을 목격한 담임선생님은 보건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두 학생을 분리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종국이와 석진이 각각 사안조사를 겸하는 사전모임을 진행했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대화모임을 열게 되었다. 종국, 석진의 학부모도 대화모임에 동의했으며 대화모임에 참석하진 않고 학교에 일임한 상태이다.

(전담기구의 신고접수, 보고 등의 활동은 생략합니다.)

- ☞ 위 사안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나 사안이 학급 구성원 전체에게 노출되었고, 얼굴 공격이라는 신체적 폭력이 있었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 ☞ 사안을 단순한 다툼으로 판단하여 화해를 종용하거나, 해당 사안으로만 갈등을 종결하면 재발의 위험성(축구 활동 중의 다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급구성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과 함께 갈등을 다루어야 합니다.
- ☞ 사전모임은 피해 학생과 먼저 실시합니다.
- ☞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일임함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 절차는 생략했습니다.





1단계 사전 모임

가

사전모임 열기

석진이와의 사전모임 열기	종국이와의 사전모임 열기
<p>교사 :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로 석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석진이와 나와의 비밀이에요. 다만, 석진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외적으로 알릴 거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석진에게 이야기할게요.</p> <p>석진 : 네.</p> <p>교사 : 선생님의 역할은 이번 일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거고 석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만약 선생님이 도울 수 없는 부분이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달할게요.</p>	<p>교사 :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로 종국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종국이와 나와의 비밀이에요. 다만, 종국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외적으로 알릴 거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종국에게 이야기할게요.</p> <p>종국 : 네.</p> <p>교사 : 선생님의 역할은 이번 일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거고 석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만약 선생님이 도울 수 없는 부분이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달할게요.</p> <p>☞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만났다고 전달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p>

나

상황 이해하기

석진이의 상황 이해	종국이의 상황 이해
<p>교사 : 선생님이 듣기로는 축구 경기 중에 다툼이 있다가 석진이가 종국에게 맞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p> <p>석진 : 네, 맞아요.</p> <p>교사 :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들려 줄래요?</p> <p>석진 : 종국이란 제가 같은 편이었는데, 그날 종국이 실수를 많이 하길래 “너, 진짜 못한다.”라고 했고 골 넣을 기회를 놓치고 실수를 하니까 “너 때문에 진다.”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너 뭐라고 했냐?”면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두 번 때렸어요.</p> <p>교사 : 평소 종국이와는 어떤 관계예요?</p> <p>석진 :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같이 축구도 하고, 학교 끝나고도 같이 놀기도 하는 친한 사 이에요. 그런데 이런 적은 없었어요.</p> <p>교사 : 친하지만 다툼 적은 처음이군요.</p> <p>☞ 담당 교사는 학생과의 면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비언어적 단서의 관찰을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을 주목합니다.</p>	<p>교사 : 학급 친구들과의 축구 경기 중에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p> <p>종국 :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제가 그날 실수를 좀 했어요. 실수해서 기분이 안 좋은데, 잘 안 될 때마다 석진이가 “종국이가 끼면 맨날 제!”라는 식으로 약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짜증만 나는 정도라 계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 이 병신아.”, “시X나 못해”라고 하니까 너무 열 받아서 때렸어요.</p> <p>교사 : 그렇군요. 얼굴을 두 번 주먹으로 때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p> <p>종국 : 네.</p> <p>교사 : 친구들끼리 종종 축구하면서 다투기도 했는데 이렇게 주먹이 나간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종국이와 석진이는 어떤 관계예요?</p> <p>종국 : 개가 나대기도 하지만 놀 땐 재미있어서 같이 많이 어울려 놀아요. 평소엔 그냥 지나갔지만 아깐 참을 수가 없었어요.</p> <p>☞ 다른 학생의 이야기와 다르거나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p>



다 감정 이해하기

석진이의 감정 이해	종국이의 감정 이해
<p>교사 :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p> <p>석진 : 기분이 너무 나빠요.</p> <p>교사 : 구체적으로 설명해줄래요?</p> <p>석진 : 축구하면서 종국이도 그렇게 말하는데 다들 보는 앞에서 갑자기 때리니까 너무 화나죠.</p> <p>교사 : 갑자기 있던 일이라 놀랐고 친구들 앞이라 창피하고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나봐요. 그래서 화도 많이 난 것 같구요.</p> <p>석진 : 네, 그땐 놀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똑같이 때려 주고 싶어요.</p> <p>☞ 피해 학생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지만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p>	<p>교사 : 이번 체육 시간에는 평소와 뭔가 달랐나 보군요.</p> <p>종국 : 네, 저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욕하는 것도 잘 못이잖아요. 언어폭력도 학교폭력 아닌가요?</p> <p>교사 : 종국이는 본인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한가요?</p> <p>종국 : 네, 석진이도 잘못했는데 저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 억울해요.</p> <p>교사 : 다른 사람들이 다 종국이만 잘못했다고 할 것 같아 걱정되는군요.</p> <p>종국 : 네, 맞아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된다고 하니 까 걱정돼요.</p> <p>☞ 열린 질문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이끕니다. 하지만 학생의 생각에 동의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 진짜 억울하겠다. (X)</p>

라 욕구 이해하기

석진이의 욕구 이해	종국이의 욕구 이해
<p>교사 : 평소 친구들이 석진이에게 축구를 잘 못 한다고 핀잔을 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p> <p>석진 : 화나죠. 평소에도 서로 심한 말을 주고받는 사이라 축구할 때만 그랬고 끝나고 나서는 더 말 안 했어요. 하지만 폭력은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개한테 가서 따지고 싶어요.</p> <p>교사 : 평소와 달리 때렸다는 게 속상한가 본데 석진이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p> <p>석진 :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때렸으니 사과도 다른 친구들 앞에서 했으면 좋겠어요.</p> <p>교사 : 석진이가 속상한 점은 친구들 앞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과 종국이가 때렸다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종국이에게 사과받길 원하고요.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p> <p>석진 : 네, 맞아요.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어요.</p> <p>교사 :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석진이가 생각하는 진심을 담은 사과예요?</p> <p>석진 : 미안하다고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잘</p>	<p>교사 : 종국이는 이번 일이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나요?</p> <p>종국 : 때린 건 잘못인데, 석진이가 한 욕은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p> <p>교사 : 석진이를 때린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바로잡길 원하나요?</p> <p>종국 : 잘못된 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겠죠. 전에는 그냥 지나갔어도 이번에는 저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욕을 해서 너무 화가 났다고 말하고 싶어요.</p> <p>교사 :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욕을 계속해서 화가 많이 났다고 설명하고 싶군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p> <p>종국 : 원래 같이 놀기도 했고, 이 정도 장난할 때도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좀 짜증이 나서 화를 참지 못했어요.</p> <p>교사 : 짜증이 많이 났다고 했는데 그날 다른 일이 있었나요?</p>

못한 거 인정하는 거요.
 교사 : 중국이가 석진에게 잘못된 점을 사과했고 그 점을 친구들이 알면 속상한 마음이 나아질까요?
 석진 : 네.
 ☞ 학생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듣고 즉시 가능/불가능으로 답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도록(p.41 공동체를 연결하는 대화기술) 하거나 본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 별건 아닌데 아침에 엄마한테 혼난 일도 있었고 그날따라 축구도 잘 안 됐어요.
 교사 : 그랬군요.
 ☞ 학생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질문합니다.
 (예) 학생: 잘 해결되면 좋겠어요.
 교사: 어떻게 해결되면 잘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마 안내 및 의사 확인하기

본모임 안내 및 의사 확인(석진)	본모임 안내 및 의사 확인(중국)
<p>교사 : 중국이에게 사과를 받기 위한 ‘대화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대화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석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p> <p>석진 : 누가 더 오나요?</p> <p>교사 : 석진이와 중국이의 모임 참석은 꼭 필요하고 담임선생님께 함께 해달라고 부탁할까 해요. 부모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p> <p>석진 : 부모님과 이야기해 볼게요.</p> <p>교사 : 네, 대화모임에 대한 동의서를 줄테니 부모님과 얘기 나눠 보고 선생님은 부모님과 상담할 예정이니 따로 설명할게요.</p> <p>석진 : 네.</p> <p>☞ 학생에게 갈등조정이나 관계회복 모임보다는 ‘대화모임’이라고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p>	<p>교사 : 석진이에게 화가 난 점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대화모임’을 갖고자 해요. 부모님께도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설명하고 대화모임에 대한 의사를 여쭙을까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어머니와 석진이 어머니께서도 대화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담임선생님께도 대화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부탁할 예정이에요. 혹시 대화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점이 있나요?</p> <p>중국 : 엄마한테 혼날까 봐 걱정이 돼요.</p> <p>교사 : 어머니께 혼나는 것이 걱정되는군요. 선생님이 어머니께 잘 설명 드려 볼게요. 우선 대화모임에 대한 동의서를 줄게요. 대화모임 열리는 것은 석진이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리게 되면 알려줄게요.</p> <p>중국 : 네.</p> <p>☞ 대화모임 진행에 대해서 학생이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 충분히 알아봅니다.</p>

바 소감 나누기

소감 나누기(석진)	소감 나누기(중국)
<p>교사 : 오늘 대화에 집중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소감이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p> <p>석진 : 선생님과 이야기하니깐 기분이 괜찮아졌어요.</p> <p>교사 : 석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안심이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다른 사항을 안내하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오세요.</p>	<p>교사 : 오늘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소감이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p> <p>중국 :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마음이 놓여요. 엄마하고도 잘 이야기해 볼게요.</p> <p>교사 : 중국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안심이 됩니다. 대화모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알려주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p>



2단계 본모임

가 본모임 열기

◆ 표기상의 편의를 위하여 갈등조정 진행자를 “교사”로, 담임교사를 “담임”으로 나타냈습니다.

교사 : 안녕하세요. 오늘 대화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과의 사전모임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한다는 점을 알고 미리 동의를 구하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의 현재 몸과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짧게 말하겠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숫자를 사용해서 표현해도 좋습니다. 1점부터 10점까지의 숫자 중 힘이 드는 만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이고 오늘 본모임을 시작하면서 살짝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불편한 것은 아니라서 제 마음의 상태를 숫자로 표현하면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진 : ○학년 ○반 석진이에요. 맞은 자리가 아직도 아프고 그때 기억이 떠올라요. 몸도 마음도 7이나 8정도로 힘든 마음입니다.

담임 : 석진이와 종국이의 담임교사 ○○○입니다. 두 사람과 앞으로의 우리 반 걱정에만 동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석진이와 종국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조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종국 : ○학년 ○반 종국입니다. 엄마한테 혼났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혼나진 않았어요. 오늘 대화를 나누고 흥분해지고 싶어요. 이런 자리에 참석한 것이 떨리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는 5정도입니다.

교사 : 이 자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귀 기울여 들으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석진이와 종국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대화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 참여자들의 감정의 동요를 살핍니다. / 센터피스를 만들어 참가자의 시선 처리를 돕습니다.

☞ 조정자는 중립을 지키며 덕담과 같은 이야기는 대화모임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화적 해결의 의지를 가진 사람(담임선생님)의 이야기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 대화모임을 짧게 소개하며 간단한 질문에 돌아가며 답합니다.

나 대화모임 약속 안내와 확인

교사 : 안전한 대화를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호칭입니다. 서로 ‘야’나 ‘재’, ‘너’와 같은 말을 쓰지 않고 이름을 부르도록 합니다.

모두 : 네.

교사 : 다음으로는 서로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발언권을 준 학생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모두 : 네.

교사 : 감사합니다. 또한, 안전한 대화를 위해 감정 표현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호흡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

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되,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주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모두 : 네, 괜찮습니다.

교사 : 미리 준비된 종이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포함한 안전한 대화를 위한 약속이 적혀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잠시 기다림)

교사 : 의견이 없다면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모두 : 네.

☞ 대화모임의 약속을 대화모임 중 참고할 수 있도록 적어둡니다.

☞ 대화가 진행되다 필요하다면 약속을 더 추가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다 입장 나눔

교사 :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서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다르지 않아 사전에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거나 보충할 점이 있다면 이야기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지난 수요일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 석진이와 중국이는 같은 편이었고 축구 시합을 하던 중 석진이가 중국이에게 거친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중국이가 석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습니다. 맞나요?

모두 : 네.

교사 : 석진이가 중국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알려주세요.

석진 : “너, 진짜 못한다.”라고 했고 중국이가 패스하다 실수하고 또 슛을 했는데 골을 못 넣으

니까 “너 때문에 진다.”라고도 했어요.

교사 : 중국이가 들었던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줄래요?

중국 : “중국어이끼 끼면 맨날 제!”라고도 했고, “야, 이 병신아.”, “시X, X나 못해!”라고도 했어요.

교사 : 맞나요?

석진 : 네, 그렇게도 말했어요. 축구하면서 중국이랑 다른 애들도 평소에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때리는 건 아니죠.

교사 :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 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서 가장 힘들었거나 속상했던 점을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석진이부터 해볼까요?

석진 : 황당했어요. 그때 맞은 게 아직도 아파요.



평소에 아무리 장난을 쳐도 서로 때린 적은 없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주먹을 휘두를 줄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때렸다는 게 제일 화나요.

교사 : 갑자기 있던 일이라 놀랐고 친구들 앞이라 창피했다고 했죠. 그래서 화도 많이 났다는 이야기군요.

석진 : 네, 평소와 달리 왜 저를 때렸는지 따지고 싶어요. 다들 보는 앞에서 사과도 받고 싶고요.

교사 : 중국이가 때렸다는 점과 친구들 앞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이 가장 속상한 점인가요? 그 부분이 석진이에게 가장 중요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인가요?

석진 : 네.

교사 : 중국이는 석진이가 방금 한 얘기를 들은 대로 말해줄래요?

중국 : 맞은 게 아팠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서 기분이 나빴다고 해요. 왜 때렸는지도 궁금하다고 했어요.

교사 : 중국이도 이번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이번 일을 겪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중국 : 석진이를 때린 건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평

소에 저도 그랬다고 해도 그날은 전 욕하거나 놀리지 않고 계속 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석진이가 옆에서 자꾸 욕을 섞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쪽 찹기도 했었다고요.

교사 : 그날 기분이 나빴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중국 :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고 축구도 잘 안 됐어요.

교사 :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고 축구에서도 그 기분이 이어졌군요. 중국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중국이가 기분 나쁜 상태를 알아주고 존중해주길 바란 거라고 이해되네요. 맞나요?

중국 : 네.

교사 : 석진이가 들은 대로 이야기해줄래요?

석진 : 아침부터 혼나서 기분이 안 좋은데 제가 축구하면서 계속 뭐라고 해서 참긴 했는데 기분 나빠서 그랬대요.

교사 : 중국이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도 들었나요?

석진 : 네, 중국이가 기분 나쁜 상태를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중요한 것 함께 보이게 적어두기)

☞ 사전모임을 통하여 사건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내용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리합니다.

☞ 적극적인 공감은 편들기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라고 들었어요.” 정도로 간략하게 수용합니다.

☞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적어둡니다.

라 해결방안 모색

교사 : 그러면 서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함께 상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말해볼까요? 중국이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중국 : 제가 때린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싶어요. 친구들 보는 앞에서 그런 것도 미안하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점은 알아주길 바라요.

교사 : 석진이는 중국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석진 : 친구들 앞에서 때린 게 미안하다고 하니 마음이 좀 풀려요.

교사 : 석진이도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해볼까요?

석진 : 일단 사과받길 원했는데 사과한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중국이가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나빴고 제가 한 말들로 인해서 더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교사 : 담임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석진이가 친구들 앞에서 사과받길 원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담임선생님의 생각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담임 : 두 사람이 서로 원하는 것을 말하고 서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사과를 주고받는 것은 저 혼자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부모님과도 이야기해 보아야겠지만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이번 일은 석진이와 중국이뿐만 아니라 우리 반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축구를 하면서 서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욕도 하는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려서요. 이번 기회에 학급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약속하고 싶어요. 너희 생각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해?

중국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석진 : 저도요.

마 해결방안 합의

교사 :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두 사람에게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석진 :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다음에 축구 못한다고 중국이를 놀리거나 욕하지 않을 거예요.

담임 : 놀림 받거나 욕을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은 중국이만이 아닐 거예요.

석진 : 그러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할

게요. 만약 다른 친구가 제 말이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면 사과할게요.

중국 :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축구를 못 한다고 친구들에게 욕하거나 놀리지 않을 거예요.

교사 : 만약에 화가 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화가 날 때 어떻게 할지 정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 : 일단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하고, 계속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선생님께 이야기해 보려고요.



교사 : 그러면 함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며 확인해 볼까요?

(읽으며 함께 확인-p.126~127 예시 참고)

교사 : 혹시 바꾸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모두 : 좋아요.

석진 : 저부터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국아, 저번에 축구할 때, 네가 계속 기분이 나쁘지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평소처럼 너한테 욕하고 놀리고 했는데 기분이 나빴다니 정말

미안해.

중국 : 나도 널 때려서 미안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때리지 않을게. 너도 내가 화나면 화났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놀리지 말아줘.

석진 : 응, 그렇게.

교사 : 석진이도 합의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석진에게 약속할까요?

석진 : 네. 다음부터는 잘못한다고 놀리지 않을게. 그리고 화났다고 하면 나도 멈추고 내가 심한 말 하면 사과할게.

☞ 약속을 정하기 전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 약속 수행에 필요한 다른 사람의 지원도 적을 수 있습니다.

바

소감나눔

교사 :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하여 소감을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 아까 사과하긴 했지만 석진이를 때린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화해해서 기뻐요.

석진 : 저도 중국이에게 미안해요. 화해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담임 : 두 학생이 화해하는 자리에 함께해서 기쁩니다. 두 학생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교사 : 오늘 이야기된 부분은 학부모님들께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 오늘 정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을까요?

모두 : 네, 좋습니다.

교사 :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정한 약속을 잘 수행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3단계 사후 모임

가 사후모임 열기

◆ 관련학생들의 동의하에 본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담임선생님, 친구, 부모님 등)

교사 :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함께 정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석진 :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냈어요. 중국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요, 축구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중국 : 저도 잘 지냈어요. 우리 반에서 축구 할 때 지킬 약속을 같이 정했고 그래서 축구 할 때 다툼이 좀 줄었어요.

담임 : 지난번 이후로 학급에서 서클을 열어 축구 할 때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어요. 그때 중국이와 석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축구 할 때 평화적으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약속을 정했어요. 두 사람이 앞장서서 잘 지켜주고 있고 모든 것이 100%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 반이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나아질거라 생각해서 안심입니다.

나 합의 내용 이행 확인

교사 : 오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한 약속을 잘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때 마음은 어땠는지 나누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해요. 나는 잘 지켰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따지고 비난하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도록 해요. 괜찮을까요?

중국 : 저는 그때 미안하다고 하긴 했지만, 엄마가 편지를 쓰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미안한 마음을 담은 사과 편지를 석진이에게 주었어요. 친구들이 놀릴 때도 최대한 몸으로 대응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친구들과 다투지도 않았구요.

교사 : 약속대로 신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군요. 노력했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석진은 중국이의 편지를 받고 나서 어땠나요?

석진 : 편지를 받으니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괜찮아졌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욕은 하지 않으려고 했고, 다른 친구가 기분 나쁘다고 말했을 때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했어요.

교사 : 담임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담임 : 제가 보기에요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학급 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구요.



다 축하와 격려

교사 : 모두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 선생님도 기쁘네요. 앞으로도 잘 지켜주길 바라고, 이번 일이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약속을 실천하면서 잘 되지 않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석진 : 전 나를 조심하는데 가끔 친구들이 제 말에 화를 내요.

교사 :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석진이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진 : 일단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교사 : 중국이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중국 : 석진이가 저에게는 충분히 조심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교사 : 담임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담임 : 욕설이 줄었고 다룰 것 같을 때도 사과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교사 : 그렇군요. 석진이는 중국이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가요?

석진 : 선생님과 중국이가 그래도 나아졌다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더 조심할게요.

☞ 긍정적인 변화 위주로 서로 축하, 격려합니다.

라 소감 나눔

교사 : 오늘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선생님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중국이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중국 : 이번 일로 제가 화나면 순간적으로 주먹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니깐 조금 덜 하게 되어 다행이에요. 친구들에게 앞으로 조심하려고요.

교사 : 그렇군요. 석진이는 어땠어요?

석진 : 저도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다 같이 웃어야 장난이니까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좀 조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가 진짜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담임 : 두 학생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 석진이와 중국이가 용기를 내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무척 대견합니다. 오늘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 싸우지 않고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다들 많은 생각을 했군요. 이번 사안을 통해 많이 배운 것 같아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음 모임을 통해 또 좋은 얘기가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학생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의미있게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서식 1]

사전면담 보고서(예시)

 사전면담 보고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양식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해하는 상황과 그로 인한 감정, 원하는 사항이나 평소 학교에서의 모습 등을 적는다면 당사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관련 학생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상황					
이번 일로 인한 감정					
평소 상대와의 관계					
학교생활 적응 (학급에서의 위치 등)					
비슷한 일을 겪을 때 대응하는 방법					
기타 특이사항					
이번 일에서 원하는 사항					
담당 교사 의견					
작성일	20__년__월__일	작성자			



[서식 2]

합의서(예시)

- 합의서³³⁾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명란과 함께 공동체가 지원해 줄 부분도 적습니다.
- 합의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와는 다르므로 자체해결 관련 문서는 별도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활용합니다.

우리의 약속

종국- 축구 시합을 하던 도중 친구들 앞에서 석진이를 때린 일은 잘못했습니다. 석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화가 많이 나면 일단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하고, 계속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 축구 시합에서 종국이에게 욕하고 놀려서 미안합니다. 종국이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축구 경기를 하면서 다른 친구에게 놀리거나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을 듣고 누군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사과하겠습니다.

- ★ 학급 친구들에게 바라는 점
: 축구에서 서로 비난하지 않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돕기
- ★ 담임선생님께 바라는 점
: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돕기

20〇〇년 〇월 〇일

서명

〇-〇 김종국		〇-〇 지석진	
학교폭력 책임교사		담임교사	

33) 에듀피스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자료(2019) p.89

[서식 3]

갈등조정 대화모임 합의문(예시)

일시		장소	
사안 내용			

우리는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모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 본 합의문의 약속 내용은 년 월 일까지 모두 이행합니다.			
학생: _____(서명)	학생 : _____(서명)		
학부모: _____(서명)	학부모: _____(서명)		
20 년 월 일			
대화모임 조정자(교사) _____(서명)			
대화모임 참여자(교사) _____(서명)			
대화모임 참여자(교사) _____(서명)			

참고문헌

- 김정운(2015), 갈등수준별 갈등관리 방안 연구, 갈등관리연구 2.1 : 231~258
- 강현경 외(2019), 회복적생활교육으로 학급을 운영하다, 교육과 실천
- 경기도교육청(2014),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경기도교육청(2018),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 ver 2.0 (초등),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교육부(2014), 또래조정 운영 매뉴얼
- 글배우(2019),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강한별
- 글배우(2020),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강한별
- 김민자 외 3인(2019), 학교를 살리는 회복적 생활교육, 살림터
- 도종환(2012), 흔들리며 피는 꽃, 문학동네
- 마르쿠스 베른센(2020), 삶을 위한 수업, 오마이북
- 마셜 B. 로젠버그(2017), 비폭력 대화
- 이미예(2020), 달러그트 꿈 백화점, 팩토리나인
- 이재영, 정용진(2019), 회복적 정의 이해와 실천 워크북, 피스빌딩
- 이재영(2020), 회복적 정의-세상을 치유하다, 피스빌딩
- 정진(2017), 회복적생활교육 학급운영 가이드북, 피스빌딩
- 정혜신(2019), 당신이 옳다, 해냄
- 조세핀 김(2014), 교실 속 자존감, 비전과 리더십
- 존 폴 레더락(2018), 박지호역, 갈등전환, 대장간
- 캐롤린보이스-왓슨, 케이 프라니스(2018), 서클로 나아가기 :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서클 레 시피 112, 대장간
- 허승환, 나승빈(2018), 승승장구 학급경영, 아이스크림미디어
- 회복적정의평화배움연구소에듀피스, 서정기, '회복적 질문을 활용한 회복적 대화'
- Matty Thomson 외 11인(2019) 작곡, 방탄소년단 MAP OF THE SOUL : PERSONA 앨범

총괄

김인욱(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과장)
신중철(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장학관)

기획

장정희(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장학사)

검토

김은하(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장학사)
이화진(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장학사)
김형수(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장학사)
신희남(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장학사)
변성숙(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변호사)
박영수(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변호사)

감수

박성용(비폭력평화물결 대표)
서정기(에듀피스 대표)
이재영(한국평화교육훈련원 대표)

집필

이기현(삼성초등학교 교감)	강미선(운정초등학교 교사)
김성은(상패초등학교 교사)	남태훈(옹정초등학교 교사)
박지영(운양초등학교 교사)	엄태선(신천초등학교 교사)
한주연(적서초등학교 교사)	한주형(문산초등학교 교사)

삽화

정하은(경기예술고등학교 만화애니과 3학년)
최유진(경기예술고등학교 만화애니과 3학년)
김예나(경기예술고등학교 만화애니과 2학년)
윤하영(경기예술고등학교 만화애니과 2학년)
이은비(경기예술고등학교 만화애니과 2학년)